

# 1980년대 하이틴 성교육 콘텐츠와 할리퀸 로맨스 연구\*

손진원\*\*

## 〈차 례〉

1. 낭만적 사랑의 대두와 성교육의 역할
2. 청소년 섹슈얼리티의 긍정과 유예라는 아이러니
3. 하이틴 성교육 콘텐츠의 엔터테인먼트
4. 낭만의 집합체, 할리퀸 로맨스의 '교육'
5. 결론을 대신하며

## [국문초록]

이 글은 1980년대 하이틴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콘텐츠 생산의 문화적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당대의 성 담론과 비교하여 할리퀸 로맨스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성교육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던 1960년대 후반의 관련 담론들을 살펴보고, 하이틴, 즉 10대 후반 여학생을 독자로 상정한 『여학생』과 『여고시대』와 같은 잡지에 게재된 각종 성교육 콘텐츠를 확인했다. 그리고 1979년부터 출간되어 1980년대에 꾸준히 하이틴 독자들에게 읽혔던 할리퀸 로맨스를 분석하며 성교육 콘텐츠의 성 담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1960년대에는 청소년에게 '민감한' 사안으로 터부시되었던 성 담론이 70년대부터는 '교

\* 이 논문은 BK21 플러스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이 글은 2019년 11월 15일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JKC)·돈암어문학회·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국학술대회 '디지털 인문학의 동향과 한국어문학의 과제'에서 발표한 『1980년대 성폭력 '치유' 로맨스의 문화사적 의미 - 하이틴 여성잡지의 상담란과 샬롯 램의 소설을 중심으로』의 문제의식을 확장해 작성되었다. 발표의 토론을 맡아주신 이주라 선생님(원광대)의 소중한 의견으로 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이영재 선생님(성균관대)께서는 문제의식을 확장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셨다. 두 분의 선생님과, 부족한 글을 읽고 많은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 고려대학교 박사수료

육'을 목표로 서사화 되어 점차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80년대에 들어서면 '오락성' 혹은 '상업성'의 성격을 지닌 콘텐츠로 전락되었다. 성교육 콘텐츠의 성 담론은 당시 하이틴을 독자로서 상정해 출판되었던 할리퀸 로맨스와 긴밀하게 관련이 있었다. 성교육 콘텐츠가 교육적 목적은 물론 하이틴 독자가 성애를 상상하고 은밀하게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의 역할을 했으며, '저질 출판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할리퀸 로맨스는 오히려 하이틴을 둘러싼 당대 성 담론과 조응하는 부분이 다수였고, 보수적인 당대 성 담론의 시야를 넓히는 역할까지 했다.

이 논문은 80년대 하이틴의 성교육 콘텐츠와 할리퀸 로맨스의 연관성을 다루었다. 이 글이 각종 성 담론과 문화적 배경, 그리고 여성의 독서 취향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에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하이틴, 1980년대, 성교육, 할리퀸로맨스, 낭만적 사랑, 여학생, 여고시대

## 1. 낭만적 사랑의 대두와 성교육의 역할

이 글은 1980년대 '하이틴' 즉 10대 후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콘텐츠<sup>1)</sup> 생산의 문화적 흐름을 살펴보는 동시에, 성교육 콘텐츠의 내용과 당대의 성 담론을 견주어보며 하이틴을 독자로서 상정하여 출판되었던 할리퀸 로맨스<sup>2)</sup>를 재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학생을 둘러싼 성 담론과 함께 성교육 도입의 문제는 1960년대부터 꾸준히 생산되고 있었다. 이 흐름을 먼저 짚고 난 뒤에야 1980년대 성교육 콘텐츠의 성격이 부각된다고 판단해, 1960년대 말부터 관련 담론을 확인할 것이다. 특히 1960년대부터 꾸준히 여학생들에게 읽혔던 잡지 『여학생』<sup>3)</sup>과, 1970년대부터 여학생을 겨냥해 창간

1) 이 글에서 '콘텐츠'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 생산, 유통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식과 생각이 여러 매체에 담긴 아날로그 정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서 사용되었다. 후술하겠지만 하이틴 잡지에 실린 성교육 기사들은 '수기'와 '카운슬러(상담)'의 사연, 만화 등 스토리텔링의 형태로 전달되었는데, 관련 지식 전달은 물론 오락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즉 수용자의 엔터테인먼트를 만족시키는 상업적 스토리텔링으로써 1980년대 하이틴 잡지의 성교육 기사들을 '콘텐츠'라 명명하기로 한다.

2) 1980년대에는 삼중당의 '하이틴 로맨스' 시리즈를 비롯한 실루엣 문고, 애플북스 등의 문고본 로맨스를 '하이틴 로맨스'라 통칭했지만, 현재는 당시의 문고본 역시 '할리퀸 로맨스' 혹은 간단하게 '할리퀸'이라 지칭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이 글은 1979년부터 출간된 '하이틴 로맨스' 시리즈를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지금의 대중적인 지칭을 따라 '할리퀸 로맨스'라 표기하였다.

3) 1965년 11월(12월호, 발행인 박기세)에 창간, 1990년 11월에 폐간된 잡지다. 독자인 여학생이 "여성으로서의 교양을 쌓고 실력을 길러 사회의 기초가 되고 훌륭한 한국의 여성들이 되어 주"기를 원한다는 창간호 권두언을 통해, 여성 청소년의 교양과 선도를 목적으로 발행된 잡지임을 알 수

되어 읽힌 『여고시대』<sup>4)</sup>를 살펴볼 것이다. 이 두 잡지는 매달 성교육 콘텐츠를 지면에 실어 나르고 1980년대에는 할리퀸 로맨스의 광고를 담고 있어, 하이틴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성담론과 성교육 콘텐츠, 할리퀸 로맨스를 경유하는 본고의 흐름을 관통하는 매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청소년 및 청소년 잡지에 관한 연구에서는,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의 대상이었던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이 근대적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젠더화 과정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정미량의 지적처럼, 1960년대부터 꾸준히 중고등학생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청소년 교육이 대중화되기 시작함과 동시에 국가발전을 위한 여성화 교육이 수행되었다.<sup>5)</sup> 청소년은 ‘미래의 국민’으로, 학교교육과 교양을 통해 국가 건설에 대한 지배적 이념교육의 대상이 된 것이다. 권인숙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영향력 있었던 청소년잡지 『학원』과 1960년대 중후반부터 광범위한 인기를 끌었던 『여학생』을 검토하면서, 1960년대 중반 이후 국민 만들기의 성별화를 통해 남성은 국민국가의 정치적 주체로, 여성은 그의 보조자로서 ‘현모양처’라는 이상형에 포섭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sup>6)</sup> 나윤경

있다. 1982년에는 10만부를 인쇄할 정도로 많은 독자층을 확보했다.

“이 잡지는 65년 12월 창간한 이후 한 호도 거르지 않고 발간해왔는데 현재 10만부를 인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부수는 성인 여성지 발행부수에 맞먹는 것으로 남학생 잡지는 아예 발간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 잡지계에서의 여학생 파워를 증명.”; 『월간 여학생 2백호 돌과 자축잔치』, 『경향신문』, 1982년 6월 12일, 7쪽.

- 4) 세분화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월간지 발행이 활기를 띠던 때, 여성 청소년 학습·교양의 목표로 출간된 잡지다. 1976년 5월호부터 예문관(여고생사)에서 창간, 1980년에 어문각에 통합되어 1986년 12월까지 출간된 잡지다. 발행인 김영환은 1980년과 1986년에 각각 문공부 장관 표창과 잡지인론상 유공부문을 수상했다.

“여고시대 5월 창간호 - 여고생 전문 교양잡지로 나왔다. <보석과 같은 예비숙녀를 만드는 여고생 잡지>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선을 보인 이 잡지는 …(중략)… 발행처는 도서출판 예문관에 의해 창설된 ‘여고생사.’ 『정기간행물』, 『경향신문』, 1976년 4월 12일, 5쪽; 『활기 띤 월간지 발행 - 최근의 출판가 동정』, 『매일경제』, 1976년 4월 20일, 7쪽; “도서출판 어문각이 새해를 맞아 어문각·새소년사·여고시대사를 통합하여 주식회사 어문각(대표 김영환)을 설립, 체제를 강화했다.” 『어문각 주식회사로 체제 바뀌』, 『매일경제』, 1980년 1월 12일, 8쪽; 『소식』, 『매일경제』, 1980년 2월 5일, 9쪽; 『김영환 여고시대 발행인 잡지인론상 유공부문 수상』, 『경향신문』, 1986년 11월 1일, 3쪽.

- 5) 정미량, 『1960년대 한국 중등학교 여학생의 여성성 구성과 그 함의 - 잡지 여학생 분석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66권, 한민족문화학회, 2019, 144~146쪽.

- 6) 권인숙, 『1950~70년대 청소년의 남성성 형성과 국민 만들기의 성별화 과정 - 청소년 잡지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6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304~313쪽.

역시 『학원』과 『여학생』 잡지를 비교, 검토하면서 1960년대와 70년대, 여학생을 둘러싼 담론들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 의하면 60년대 『여학생』은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이고 여성의 순결 계몽을 중심으로 담론이 진행되었다.<sup>7)</sup>

위의 연구들에서 흥미로운 점은 1970년대부터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애와 순결에 대한 화두가 대두되었다는 현상을 짚어냈다는 것이다. 권인숙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잡지 『여학생』이 순결을 가장 빈번하게 다루었다고 분석함과 동시에, 성욕을 경계하고 순결을 책임져야 하는 이가 남성이 아닌 여학생에 달려있었다고 소개한다.<sup>8)</sup> 나윤경 역시 『학원』과 『여학생』같은 청소년 잡지가 1968년을 기점으로 연애담, 연애전략 등을 다루고 여성을 소비자로 담론화하며 변화한다는 사실을 포착한다.<sup>9)</sup> 이에 대해 정미량은 여학생이 “남성에 의한 성적 대상으로 의미화”되었다고 지적한다.<sup>10)</sup> 1960년대 말부터 여학생이 연애의 대상으로 성애화되는 한편 건전한 이성교제를 촉구하는 우려의 담론과 순결 교육이 대두된 이유에 대해, 위 연구자들은 성과 관련한 책임과 문제가 여성에게 전가되는 군사정권의 성 정치로 설명하였다.

1970년대 잡지 『여학생』의 논조 변화에 대해서는, 급격한 산업화와 여러 매체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성관계가 더 이상 전통적인 ‘남녀칠세부동식’의 윤리로 해결되지 않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폭발하는 10대 인구의 증가로 청소년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던 사회적 배경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가족계획사업’의 성 담론이 여학생 색슈얼리티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조은주는 1960년대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창립 배경과 활동 내역 그리고 기관지 『가정의 벗』을 분석하며, 국가가 인구 개념을 새롭게 포착하고 인구 조절을 위한

7) 나윤경, 『60~70년대 개발국가 시대의 학생잡지를 통해서 본 10대 여학생 주체형성과 관련한 담론 분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6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340~342쪽.

8) 권인숙, 앞의 논문, 310~313쪽.

9) 나윤경, 앞의 논문, 345~363쪽.

10) 정미량, 앞의 논문, 166~167쪽.

통치 도구로서 ‘가족’이 정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sup>11)</sup> 국제적인 원조를 통해 각종 피임법을 개발, 보급한 ‘대한가족계획협회’의 60~70년대의 사업은 근대적인 가족 형성과 이에 알맞은 사랑의 방식 즉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sup>12)</sup>을 장려하기에 이르렀다. 가족계획을 위해 보급된 피임법은 재생산과 섹슈얼리티를 분리하는 역할을 했는데, ‘협회’의 성담론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공개적이고 긍정적으로 다루는 대신 부부의 사랑과 애정 교류의 증거라는 맥락에서 통용되었다. 조은주는 60~70년대 ‘협회’의 성담론이 견고한 두 남녀의 사랑으로 엮인 혼인관계를 가족의 기본 단위로 바라보는 ‘정상성’을 정립했다고 설명한다.<sup>13)</sup>

위와 같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여학생이 사회가 요구하는 ‘예비 현모양처’의 상에 매몰되는 수동적인 존재로만 수렴되지 않았다는 것이 본고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다. 당시 여학생에게 기대되었던 미래는 근대가족의 ‘정상성’을 획득하기 위한 ‘낭만적 사랑’의 노정을 따라가는 것이 거의 유일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그들은 남학생과 똑같이 교복을 입고 공부하거나 직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꾸준히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미래의 동반자를 물색해 ‘선택’해야 하는, 매우 ‘실전적인’ 기법이 필요한 존재로 바뀌어 나갔다. 여학생은 주체적으로 이성교제를 고민하고 행동하도록 기대되었으며, 사회는 이러한 여학생의 섹슈얼리티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 이전 시기와 전혀 다른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본고는 이러한 전략이 여학생을 향한 ‘성교육’으로 가시화되었다고 본다.

성교육은 피교육자에게 성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을 전달해 인간의 성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를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 성교육은 성(sexuality)을 모든 인간의 성격의 종합으로서 생물학

11) 조은주, 『가족과 통치』, 창비, 2018, 23~30, 269쪽.

12) 19세기 유럽의 혼인 관계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판단과는 다른, 인생의 동반자적인 부부를 상상하고, 정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가정(home)’을 기대하게 되었다. 남녀의 친밀성을 문제 삼는 사랑의 방식을 ‘낭만적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앤서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2003, 60~61, 85~86쪽.

13) 조은주, 앞의 책, 175~216쪽.

적, 심리적, 문화적, 윤리적 측면에서 바라본다.<sup>14)</sup> 특히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건강한 자아개념을 확립함으로써 타인과 원만한 의사소통을 이룩하기 위해 성교육에서는 신체 이미지의 인식, 대인관계, 의사결정, 성적 친밀감에 대한 이슈를 다룬다.<sup>15)</sup> 즉 성교육은 성행동과 관련된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전인교육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1968년부터 성교육을 중학교 교과과정에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언론과 잡지에서도 꾸준히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파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제도적으로 성교육이 정착되었고 그 이전의 청소년, 특히 여학생의 성교육은 매스컴이나 신문, 잡지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sup>16)</sup> 1970년대부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잡지들은 성교육을 목적으로 다양한 특집 기사, 독자수기, 상담실, 만화, 사진자료 등을 제시하며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은 물론 도덕적·윤리적 신장을 꾀하였는데, 80년대 중반 이러한 성교육 자료들은 ‘섹스 상업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쯤에서 1970년대와 80년대, ‘하이틴’이라는 용어를 다시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10대 청소년이 되었던 1970년대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하이틴 문화 산업’이 일어났다. ‘하이틴’ 자체는 미디어에서 사용한 저널리즘 용어에 가까웠으며,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연예인이나 발랄한 성격의 여대생, 사회 초년생 등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을 가리켰다. 1970년대 말 10대 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르

14) 인간의 성은 매우 복잡하여 그 종합적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렵다. 최소한 문화적·심리적·윤리적·생물학적인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 서로 중복되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Clint E. Bruess · Jerrold S. Greenberg, 조아미 외 옮김, 『성교육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11, 19~26쪽.

15) 신체 이미지란 자신의 성별에 대한 만족감과 신체적 기능에 대한 편안함을 포함한다.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며 감정을 소통하는 것을, 의사결정은 개인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성적 친밀감은 성적 감정과 사랑의 차이를 이해하며 타인의 감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Clint E. Bruess · Jerrold S. Greenberg, 위의 책, 26~28쪽.

16) 김정옥,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의식 실태에 대한 문헌연구』, 『가정생활연구』 제3집, 대구대학교 가정생활연구소, 1988, 84쪽; 김정옥, 『성교육 관련문헌 분석·비교연구 : 1986년부터 1994년까지의 문헌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4권 2호,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7, 362쪽; 이진분·김동위, 『한국 성교육의 실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제9집, 상명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88, 19~23쪽.

영화<sup>17)</sup>가 등장하면서, 하이틴은 ‘교복을 입은 10대 청소년, 특히 여학생’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sup>18)</sup> 1980년대에는 이 하이틴을 독자로 상정한 잡지들이 여러 출판전략을 내세웠고, 그 결과 하이틴이라는 용어에 여러 함의가 추가되었다. 가령 1980년대 하이틴은 교복을 입은 10대 여학생임과 동시에 새로운 출판환경 속에서 베스트셀러와 밀리언셀러 도서에 관심을 보이고, 미·서구 문화에 호의적이며 사랑·연애와 관련된 독서 취향을 지닌, 그리고 문고본 로맨스의 주독자로 인식되었다.<sup>19)</sup> 70년대를 지나 80년대에 이르면, 10대 후반 여학생은 하이틴이라는 이름으로 포섭되어 TV방송, 영화, 출판, 음반 등 각종 매체 산업의 주요 소비자로 인식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가 생산된 것이다.

여학생(하이틴)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사회가 요구하는 가족의 ‘정상성’과 ‘낭만적 사랑’의 담론을 경유하는 한편 소비자의 흥미에 알맞은 상업성과 엔터테인먼트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이 글은 1970년대에 ‘낭만적 사랑’을 설계하는 성 담론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성교육 가시화에 주목하고, 하이틴 잡지의 성교육 콘텐츠가 1980년대에 점차 하이틴이 직접 성애를 상상하고 그것을 은밀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변화한 사실을 포착하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교육 콘텐츠와, 하이틴의 주요 독서물이었던 할리퀸 로맨스를 견주어 비교해보고자 한다.

1979년 12월 삼중당에서 출간된 ‘하이틴 로맨스’ 시리즈<sup>20)</sup>는, 캐나다의

17) 엄준석은 지금의 ‘하이틴물’ 역시 1970년대 ‘하이틴 영화’의 장르 문법을 따르고 있으며, 이 문법의 기원으로 ‘진짜진짜’ 시리즈와 ‘알개’ 시리즈를 제시한다. 가령 “불량한 남학생이 모범생인 여고생에 의해 계도 되고 서로 좋아하게 되는 것, 불량한 남학생이 학우의 도움 및 희생 때문에 계도 되는 것, 그리고 불량/모범학생과 남/여고생에의 재현방식”이 ‘하이틴 영화’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다. 엄준석, 『1970년대 한국 하이틴 영화 연구 : ‘진짜 진짜’ 시리즈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3~4쪽.

18) 엄준석, 위의 논문, 16~31쪽; 유인호, 『1970년대 하이틴 영화에서의 청소년 주체구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3~22쪽.

19) 손진원, 『1980년대 문고본 로맨스의 독자 상정과 출판 전략 연구 - ‘하이틴’ 기호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 25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9, 47~60쪽.

20) 1979년 처음 출간된 후 1980년까지 총 스무 권의 시리즈가 발간되었다. 이후 1983년 5월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1983년 5월부터 매달 5권씩 발행했고, 1984년 7월부터 7권씩 발행, 1985년에는 매달 8권씩 출간했다. 그밖에 ‘하이틴 이미지’, ‘하이틴 아메리칸 로맨스’ 등의 카테고리가 84년과 85년 기점에 신설되는 등 83년부터 꾸준히 독자층이 늘어 85년에 절정을 이루

로맨스 전문 출판사 할리퀸(Harlequin)의 ‘할리퀸’과 ‘할리퀸 프레젠티’ 카테고리(21)의 일본어판을 중역한 해적 출판물이었다. 1986년 할리퀸 출판사의 정식판본이 ‘시사영어사(IPS)’에서 출간, 1992년 출판 사업이 분리된 ‘신영미디어’를 통해 현재까지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다.<sup>22)</sup> 1980년대의 할리퀸 로맨스는 청소년이 읽기에 적합하지 않은 ‘저질 출판물’이라며 저평가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읽혔다. 이후 할리퀸 로맨스의 독자들은 직접 한국적인 로맨스를 창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장르를 형성해왔다. 최근 웹소설 상업 시장의 발전과 함께 장르로서의 로맨스가 가시화되면서 학계에서도 새롭게 평가되고 있는 추세다.

1980년대 하이틴 잡지의 성교육 콘텐츠가 하이틴의 섹슈얼리티를 계도하려는 목적과 다르게 성애를 즐길 수 있는 이중적 역할을 했고, 역으로 할리퀸 로맨스는 당대 담론이 요청하는 ‘낭만적 사랑’의 성취를 이상적인 사랑으로 전달해 ‘교육’적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것이 본고의 논지다. 따라서 할리퀸 로맨스가 가지고 있었던 ‘저질 출판물’, ‘선정적’, ‘사랑 개념의 왜곡’, ‘황금만능주의’와 같은 도덕적 평가를 내리는 대신, 1980년대의 성교육 콘텐츠와 동일선상에서 담론의 어느 부분과 대응되는지, (혹은 대응되지 않는지) 확인하려 한다.

## 2. 청소년 섹슈얼리티의 긍정과 유예라는 아이러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sup>23)</sup>에 대한 필요성은 50년대 중후반부터

---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86년에 ‘할리퀸’의 정식 출간 이후 삼중당은 ‘하이틴 로맨스’ 카테고리를 ‘로맨스파트너’라는 이름을 붙여 80년대 말까지 거의 500권에 육박하는 문고본이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1983년도 삼중당에서 출간된 할리퀸 로맨스 작품들을 주로 참조하였으며, 그밖에 80년대 할리퀸 작가의 작품을 입수할 수 있는 대로 작품을 구해 논문의 대상으로 삼았다.

21) 로맨시안(<https://www.romancian.com/>/로맨스-소설의-역사-할리퀸-장르-총정리/)

22) 손진원, 앞의 논문, 43~44쪽.

23)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성교육과 순결교육이라는 말은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본고는 ‘성교육’으로 통일해 사용하되, 원문 인용 시 문헌에 있는 단어 그대로 표기하도록 한다. 성교육과 순결교육



꾸준히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1955년의 한 기사에서는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남자 47명과 여자 125명, 총 합계 172명 중 62명이 “성지식은 보급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을 보였고, “성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문항을 선택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sup>24)</sup> 기사에서는 국제적으로 성교육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일부 선진 국가에서는 실시되고 있는 형편에, 한국은 “성의 비밀과 신비화가 필요 이상으로 강요되고 있는 현실”에 놓여있다고 설명한다. “10대 청소년 및 남녀대학생들의 성의 유희는 그것이 모두 성에 대한 신기함과 신비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성의 그릇된 인식과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기 전, 성지식의 대중적 보급과 올바른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에 대한 문제가 화두에 오른 것은 문항에 제시되었던 ‘성해방’과 관련이 있다. 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성해방이 무엇인지 서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과 관련된 국제적인 지각변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20세기 초부터 인간의 성행동에 대한 전통적·종교적 도덕성이 효력을 잃고 성적 표현의 자유와 피임법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섹슈얼리티가 재생산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다.<sup>25)</sup> 위의 기사는 한국 사회 역시 ‘성의 자유화’라는 국제적인 변화의 물결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젊은 세대의 호기심을 끌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을 은밀하게 다루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10대 청소년의 성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은 1960년대 초, 학교 교과과정에 성교육 편성을 위한 기초조사로부터 시작된다. 교육연구기관인 ‘중앙교육연구소’는 1963년부터 기초조사에 착수,<sup>26)</sup> 문교부의 위촉으로

은 대부분 동일한 함의를 지닌 용어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순결교육이라는 말이 먼저 6~70년대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성교육은 그 의미와 필요성이 받아들여진 이후 정착된 단어로 보인다.

24) ‘성문제’에 대한 문항과 응답 수는 아래와 같다.

“A. 성해방은 가(可)하다. (16명) / B. 성해방은 불가(不可)하다. (30명) / C. 성지식은 보급화되어야 한다. (62명) / D. 성문제에 관심이 없다. (0명) / E. 생각해본 일 없다. (14명)” 『남녀대학생의 생활의견』, 『경향신문』, 1955년 7월 24일, 4쪽.

25) 앤서니 기든스, 앞의 책, 61~63쪽; Clint E. Bruess · Jerrold S. Greenberg, 앞의 책, 71~73쪽.

26) ‘중앙교육연구소’는 1953년 3월, 문교부와 대한교육연합회(교련)가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교련 산하기구였으나 1965년 12월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중앙교육연구소 편, 『중앙교육연구소

순결교육을 위한 지도지침을 작성하기 위해 1966년 7월 ‘순결교육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열어 순결교육의 유용함을 논했다.<sup>27)</sup> 중앙교육연구소는 문교부의 교과과정과 교과서, 그리고 기관에서 수집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순결교육 지침서’ 작성을 연구하였는데 그 내용은 각 학년별 교육수준에 따라 지도내용에 대한 방침을 세운 것이었다.<sup>28)</sup> 그리고 1968년 7월, 문교부는 이 ‘지침서’를 토대로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순결교육내용을 삽입, “여자중학교에선 오는 2학기부터, 남자중고등학교는 내년도 신학기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른다.<sup>29)</sup>

그러나 문교부의 의지대로 곧장 성교육이 교과과정에 적용되지는 않았다. 발표 약 한 달 후에 발간한 『여학생』 9월호에서는 문교부의 지침을 설명하며 성교육에 대한 정의와 ‘지침서’의 골자를 소개했다. 잡지에서는 각계각층의 반응을 살피며 성교육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성교육 시행에 대한 문교부와 중앙교육연구의 반응이 사뭇 다른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문교부의 김영옥 장학관은 “신문지상에 2학기부터 학교에서 성교육 운운 한 것은 문교부에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으며 “성교육이 아니라 순결교육”이라 정정했다.<sup>30)</sup> 그러나 중앙교육연구소의 생활지도실장 김옥기는 문교부의 ‘지침서’ 위촉과 제작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주지하다시피) 1963년부터 지도 대책을 세워왔다고 설명한다.<sup>31)</sup> 잡지는 교육적 차원에서는 성교육의 필요성이 누차 제기되고 있음에도, 당장 실시하기에는 “각 지역별

---

이십년지: 1953~1973], 중앙교육연구소, 1973, 120~135쪽; ‘순결교육을 위한 기초조사’는 1963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1964년 3월에 중간보고서가, 1965년 12월에 최종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조사에 착수했던 연구소 직원 ‘서봉연’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현재도 성교육에 대하여 taboo시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더욱 성교육에 관하여 타부시하는 경향이 농후한 상황에 있었다. 또한 소장께서 하필이면 주제가 성교육이라야 하는가 말이 있었고 소내 자체에서도 이 연구를 꺼렸던 연구과제였다. 그러면서도 이 연구과제를 끝내니까 현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성교육에 관한 기초자료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반갑다.” 중앙교육연구소 편, 위의 책, 153쪽.

27) 『성은 [타부]인가』, 『경향신문』, 1966년 7월 20일, 5쪽.

28) 생활지도연구실, 『순결교육 지침서 작성 연구』, 『소보』 제9권 1호, 중앙교육연구소, 1968년 3월, 40~59쪽.

29) 『중고생 성교육』, 『동아일보』, 1968년 7월 11일, 7쪽.

30) 『긴급입체특집 순결교육백서』, 『여학생』, 1968년 9월호, 58쪽.

31) 위의 책, 61~62쪽.

학생들의 지적 수준이” 달라 ‘지침서’를 적용하기 여러 난점이 있다고 분석한다.<sup>32)</sup> 무엇보다 성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아름다운 뉴앙스”<sup>33)</sup>로 받아들여져 그 함의가 “일반인에게 잘못 전달될까 우려”<sup>34)</sup>되어 순결교육이라는 말로 번복해야만 할 정도로, 1960년대 (여)학생에게 ‘은폐되어 있던’ 성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노골화”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이었다.<sup>35)</sup>

1960년대에는 문교부가 먼저 성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교과과정에 삽입하려했지만, 교실 내에서 세세하게 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성의 은폐’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는 논조는, 각종 지침서가 등장했던 1970년대에도 성교육의 필요성을 거론할 때마다 등장한다. 1971년 7월 인간발달연구소는 『중·고교생을 위한 성교육-계획과 실제』를 출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각 과정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의 기본적인 모델<sup>36)</sup>을 마련해 현 교과과정에 적합한 성교육 지침서라는 평가를 받고 문교부의 채택을 받았다.<sup>37)</sup> 이 책의 머리말에서는 “성교육의 문제를 다만 숨기거나 금기의 대상으로만 삼고 전될 수는 없으리 만큼 우리의 상황이 크게 변화”했음을 주장한다.<sup>38)</sup>

바로 한 달 뒤인 71년 8월,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도 『사랑의 성교육』이라는 도서를 출판했다. 1971년 출간된 『사랑의 성교육』은 자녀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출간된 책으로,<sup>39)</sup>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에게 성교육을 지도해야하는지 ‘올바른 시각’과 교육 방법론을 제시해 놓은 지침서다. 책의 2장

32) 위의 책, 59쪽.

33) 위의 책, 58쪽.

34) 김육기는 문교부의 번복에 대해 이렇게 대답한다. “(순결교육과 성교육은) 다르지 않다. 꼭 같은 얘기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성교육 성교육 하니까 일반인에게 잘못 전달될까 우려하여 그랬을 걸로 안다.”, 위의 책, 62쪽.

35) 서울사대부고 카운슬러 교사 이정숙은, “성교육의 필요성은 알지만 교사의 기술적인 것과 인격면에서 염려스럽다.”고 말하며, “한국적인 사고방식에서 은폐하고 있지만 노골화할 때는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사실이다.”라고 대답한다. 또한 그는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교수방법에서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위의 책, 60쪽.

36) 인간발달연구소, 『중·고교생을 위한 성교육-계획과 실제』, 교육출판사, 1971, 28~58쪽.

37) 『중고교 성교육 지침서 발간』, 『동아일보』, 1971년 7월 8일, 7쪽.

38) 인간발달연구소, 앞의 책, 5쪽.

39) 『사랑의 성교육 출간』, 『동아일보』, 1971년 9월 4일, 5쪽.

“성교육은 왜 필요한가”의 “시대적인 필요성”이라는 절을 살펴보면, 도서의 저자인 ‘협회’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첫째, 젊은이면 누구나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성적 존재라는 엄연한 사실을 성인들이 인정해 주어야 한다. 성교육의 목적이 과거에는 성적 표현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데 있었지만, 오늘날은 성이 부여하는 인간미를 적극 향유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 있다. (...) 둘째, 성교육은 순결 교육의 하나이지만 유독 도덕의 주입 따위만은 아니다. (...) 이것도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기술, 지식, 태도 등을 가르쳐서 저들로 하여금 이성 있는 선택과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 (...) 과거의 성은 사회적인 문제였지만, 현대의 성은 개인 사생활의 영역으로 바뀌었음을 인식해야 한다.<sup>40)</sup>

“성은 본시 은폐할 것이 아니고 올바르게 교육하여야 한다”<sup>41)</sup>는 주장에서처럼, 대한가족계획협회는 개방적인 성 담론을 형성해온 바 있다. 1961년 창립된 이래로 꾸준히 가족계획의 홍보와 계몽을 꾀하면서, 성에 대한 보수적 태도를 버리고 개방적이며 충분한 성의식의 무장을 촉구해왔다. 특히 1968년 배포된 ‘협회’의 기관지 『가정의 벗』은 매호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쾌’ 노골적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sup>42)</sup> 조은주는 『가정의 벗』의 노골적인 성담론이, 여성이 (재생산으로부터 분리된) 섹슈얼리티의 쾌락을 부부 관계를 통해 긍정하되 그것이 “현대 결혼생활”의 필수조건으로 여기도록 강조했다고 분석한다.<sup>43)</sup> 결혼이 사랑과 섹슈얼리티와 결합한 이러한 양상은, 18세기 근대 유럽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의 양식과 연결된다. 경제적 조건 때문이 아닌, 한 개인이 직접 인생의 동반자를 발견·선택하고 타자와의 커뮤니케이션으로 결혼을 꾸려나간다는 낭만적 사랑의 조건<sup>44)</sup>은 기존 ‘남녀칠세부동석’의 사회질서와 전혀 다른, 새로운 이성교

40) 대한가족계획협회 편, 『사랑의 성교육』, 대한가족계획협회, 1971, 34~35쪽.

41) 대한가족계획협회 편, 위의 책, 18쪽.

42) 조은주, 앞의 책, 177~194쪽.

43) 조은주, 위의 책, 194~208쪽.

제의 방법론을 필요로 했다.

앞에서 인용한 『사랑의 성교육』이 시대적 필요성을 부르짖은 것도 이와 일맥상통하다. 청소년에게는 더 이상 성의 은폐가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의 성욕을 인정해야 한다. 현대의 성은 개인화되었기 때문이다. 대신 정확한 ‘기술과 태도’를 가르쳐 이성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성의 생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사랑의 정의와 함께 여기에 반드시 수반되는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청소년의 교육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당시의 성담론이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구조로 재구조화하기 위해, 부부의 사랑을 특권화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강조하며 이를 ‘가족의 정상성’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sup>44)</sup> ‘성인 남녀가 연애의 절차를 밟아 결혼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섹슈얼리티가 용인되는 한계 지점이었다. 때문에 미성년자인 청소년은 사회가 규정한 ‘정상적인 사랑(낭만적 사랑)’의 단계 위에 올라설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청소년을 성욕을 느끼고 성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섹슈얼리티는 ‘성숙한’ 연애와 결혼이 가능한 성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때문에 청소년 섹슈얼리티는 유예되어야 했다.

특히 『사랑의 성교육』은 정신분석학의 이론을 근거로 삼아, 연령별 발달 단계에 따라 이성애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을 구분하고 청소년의 이성애를 긍정하되 완성되지 않은 미숙함을 논거해 청소년 섹슈얼리티를 유예한다. 가령 사춘기 직전인 12~15세는 이성애에 대한 반감과 증오가 형성되는 한편, 동성애에 대한 강한 애착을 느끼거나 연장자인 상대를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시기로 본다. 이성애를 느끼는 최초 단계는 16~18세 사춘기로, “송아지 사랑(calf-love)” 즉 신체적 관심과 이성애에 대한 막연한 동경감을 가지는 시기과, 같은 나이 또래의 이성애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교제를 이어가는 “강아지 사랑(puppy-love)”

44) 앤서니 기든스, 앞의 책, 77~86쪽.

45) 조은주, 앞의 책, 208~209쪽.

의 시기를 겪는다고 설명한다. 이때는 이성교제의 불순한 문제나 성에 대한 유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남녀교제를 지도해야 한다면서, 이 단계를 잘 견디고 대학과 사회에 진출해야 비로소 “연애(Romantic-love; 19~20세 이상)”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설명을 미루어볼 때 사춘기의 남녀교제는 정상적인 발달과정이고, “상호간의 인격적 성장과 우애 있는 인간적 결합”과 “건전한 이성관 확립”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과정이다.<sup>46)</sup> 그런데 이 교제는 연애의 선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책에 따르면, 연애는 “성충동, 정복욕구, 퍼스널리티의 충족 욕구”라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청소년은 성충동을 경험할지라도, 나머지 요소를 충족하기에는 미숙한 존재다. 따라서 사춘기 시절에 ‘첫사랑’이란 것을 경험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실제 사랑도 아닌 미숙한 감정으로 실패되는 것이 장려되었다. 『사랑의 성교육』의 “첫사랑은 실연으로 끝나야”라는 챕터에서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인용하며 ‘첫사랑’의 미숙함을 주장한다. 사춘기에 겪는 사랑은 “송아지 사랑”이며, 이 사랑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같이 부모에 대한 유년기의 정서적 애착의 연장이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은 “성숙된 연애의식과 연애행위를 할 수 있는 청년 후기를 훨씬 지난 이후라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sup>47)</sup>

가족계획의 성담론들, 낭만적 사랑을 위시하며 청소년 섹슈얼리티를 유예 하던 기획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필요성과 맞물려 있었다. 그러나 교과과정 내 본격적인 성교육 도입은 계속 흐지부지되었다. 언론은 지속적으로 공개적인 교육의 장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게 성을 언급하는 것이 불리일으킬 역효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sup>48)</sup> 언론에서 청소년 성교육의 필요성을 적극 환기한 경우는 1978년

46) 대한가족계획협회 편, 앞의 책, 82~86쪽; 상기한 내용은 80년대 발간된 하이틴 잡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여학생 순결교실-연애』, 『여학생』, 1983년 3월, 292쪽.

47) 대한가족계획협회 편, 위의 책, 89~91쪽.

48) “하지만 이 교육은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인 논란과 교육에서 오는 부작용이 없지 않음에 비추어 신중한 배려가 있어야 할 줄 믿는다.” 『가족계획과 학교교육』, 『동아일보』, 1972년 5월 23일, 3쪽; 『문교부 인구교육 대폭 강화』, 『경향신문』, 1975년 10월 23일, 7쪽; “피임에 중점을 둔 성교육이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세대들에게 어떤 역효과를 낳을 것인지에 미리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성락현 의원의 성 스캔들<sup>49)</sup>이 불거졌을 때 정도였다. 당시 문교부장관인 박찬현은 새해부터 성교육(순결교육)을 신설해 가르치겠다고 말하지만, 이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결론이라기보다는 순결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데서 나온” 임시방편에 불과했다.<sup>50)</sup> 성락현 스캔들로 ‘반짝’ 촉발된 논란은 당시 청소년 성교육 관련 담론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성 자체를 다룬다는 것이 여전히 터부시되었다는 점, 그리고 마치 남녀학생 모두에게 필요한 것처럼 거론되더라도 성교육을 무리 없이 도입하고 효과를 낼 대상으로는 여학생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근대적 질서가 형성되었던 식민지기부터 꾸준히 여성의 순결 이데올로기가 강조되었던 맥락<sup>51)</sup>을 고려하는 한편, 낭만적 사랑이라는 새로운 사랑 방식이 여성의 과업이자 권력이 된 모순적인 상황<sup>52)</sup>을 주지해야 한다.

### 3. 하이틴 성교육 콘텐츠의 엔터테인먼트

교과과정에서 세밀하게 다뤄지지 못한 청소년 성교육의 공백은 대중매체가 담당하고 있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학교 바깥에서 각종 서적과 잡지, 언론은 청소년 성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몇 가지 지식들을 매체에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sup>53)</sup> 그리고 이 성관련 지식들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했

『순결교육의 문제점』, 『경향신문』, 1975년 10월 27일, 3쪽.

49) 성락현은 1967년 6·8 부정선거 당시 개헌 찬성표를 던진 세 명의 야당의원(조흥만, 연주흠, 성락현) 중 한 명이었다. 이후 공화당 국회의원으로 정치활동을 계속하던 그는, 1978년 돌연 의원직을 사퇴한다. 공화당은 사퇴 원인에 대해 합구했지만, 시일이 지나 여고생을 농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못매를 맞았다. 『공화당도 탈당, 성락현 의원 의원직 사퇴』, 『동아일보』, 1978년 7월 29일, 1쪽; 『이공화회장 “성락현 스캔들” 국민에 사과』, 『동아일보』, 1978년 8월 4일, 1쪽; 『“성 스캔들” 나이도 어린데 하필 일본인과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것』, 『동아일보』, 1978년 8월 5일, 3쪽; 『성락현 씨 구속 방침』, 『동아일보』, 1978년 8월 8일, 1쪽.

50) 『순결교육의 필요성』, 『동아일보』, 1978년 8월 25일, 5쪽.

51) 이주라, 「한국 근대의 순결 이데올로기와 처녀라는 주제」, 『어문논집』 79호, 민족어문학회, 2017, 61~88쪽.

52) 앤서니 기든스, 앞의 책, 83쪽.

53) “최근 연세대 간호학과와 모교수가 서울 시내 여고 3년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들이 성지식을 얻은 경우는 52%가 대중매체에 의해서였고 학교교육에 의한 것은 7.1%에 지나지 않는

다. 남성보다 2차 성징이 빠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물학적인 측면 즉 월경의 현상을 설명하고, 유방의 발달과 같은 몸의 변화와 자위에 대한 고민 등 올바른 위생관념과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현대사회의 ‘정상적인’ 연애와 사랑을 논하며 여학생의 성에 대한 문화적, 윤리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1965년에 창간한 잡지 『여학생』은 1968년 문교부의 성교육 지침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이성인식, 성의식과 관련한 기사를 통해 실질적인 성교육 관련 자료를 매달 출간했다. 특히 여학생을 ‘소녀’라 명명했던 1960년대 말에는, “앞으로 가지게 될 성생활을 올바르게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sup>54)</sup>라며 여학생의 성적 문란함을 경계했다. 그로부터 약 십 여 년 뒤에 창간한 『여고시대』도 마찬가지였다. 장차 어른이 되어 연애와 결혼을 겪을 여학생이 순결해야한다는 담론은 1970년대는 물론 80년대까지 꾸준히 등장하는 내용이다.<sup>55)</sup>

그런데 이 기사들은 ‘순결한 여성이 가치있다’는 이데올로기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점차 순결담론에는 여성과 남성 구분 없이, 육체적 순결과 정신적 순결을 함께 강조하며 훗날 경험하게 될 낭만적인 연애와 결혼을 예

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습득한 성지식의 73%가 틀린 것이라는 사실이다.” 『순결교육의 필요성』, 『동아일보』, 1978년 8월 25일, 5쪽; 창간 9주년, 의식구조조사 보고서를 게재한 『여고시대』는 성교육과 관련한 문항을 포함해 설문조사하였다. 성지식과 행위 정보를 알아내는 루트로 ‘메스컴이나 신문, 잡지가 가장 높은 수치(여중생 44.6%, 여고생 50.2%)’였다고 밝혀냈다. 이 조사는 전국 거주 여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 668명, 고등학생 2646명을 대상으로 2개월에 걸쳐 잡지에 게재한 설문지로 응답을 받았으며,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3314부를 통계 처리한 것이다. 『여중고생 의식구조조사 결과 발표』, 『여고시대』, 1985년 5월, 155쪽.

54) 최명관(승실대교수), 「성의 인식을 위한 출발」, 『여학생』, 1968년 8월, 141쪽.

55) 순결을 다룬 특집기사 뿐만 아니라, 거의 매달 지면을 차지한 ‘상담란’이나 ‘카운슬러 수기’ 등의 기사에서는 연애 와중에 있는 여학생의 성생활을 부정적으로 언급한다. 대표적인 기사로 아래를 참조할 수 있다. 「상담실에 비친 주니어의 섹스고민-사랑을 증명해주고 싶어요」, 『여학생』, 1970년 8월, 268~271쪽; 「주니어를 위한 순결강좌-연애는 왜 위험한가?」, 『여학생』, 1971년 6월, 274~281쪽; 「왜 순결은 필요한가」, 『여학생』, 1972년 9월, 140~144쪽; 「여학생을 위한 사랑의 교실-순결은 곧 양심이다」, 『여학생』, 1976년 7월, 234~237쪽; 「여고생들의 순결의 밀실」, 『여고시대』, 1976년 7월, 130~133쪽; 「순결에 대하여」, 『여고시대』, 1979년 1월, 152~155쪽; 「순결에 대하여」, 『여고시대』, 1979년 3월, 180~182쪽; 「여학생 순결세미나-신성불가침, 처녀성」, 『여학생』, 1982년 1월, 244~237쪽; 「여학생 순결교실-열렬하라, 그러나 순결하라」, 『여학생』, 1983년 10월, 282~285쪽; 「순결, 여자의 전부」, 『여고시대』, 1984년 1월, 342~344쪽 등.



비하자는 논조가 추가되기 시작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신적 순결이 부각되었고, 육체적 순결 역시 “남성 위주의 성윤리에서 남녀 평등의 성윤리”로 바뀌어가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남녀 모두 순결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sup>56)</sup> 비록 여성의 순결이 역사적으로 존중된 이유를 설명하고 여학생의 순결을 강조하는 기사에서도, “순결과 비순결의 차이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며 강제로 육체적 순결을 잃은 여성의 사례나, ‘처녀막’의 문제에 골몰하는 경우는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등장했다.<sup>57)</sup>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담론에서 순결에 대한 논의와 함께 눈에 띄는 것은, 지속적으로 남녀 이성교제와 관련된 담론을 다루었다는 것이다. 『여학생』은 1960년대 말부터 ‘순결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랑을 낭만화<sup>58)</sup>함과 동시에 ‘특집’의 형태로 여학생 독자 본인의 매력 테스트, 남학생의 이상형을 앙케이트로 알아보았다. 『여고시대』 역시 이성관에 관련된 조사와 테스트를 잡지에 실었다.<sup>59)</sup>

그런데 1970~80년대 텍스트에서 용인하고 있는 사춘기의 이성교제/남녀교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우정이나 사랑이라는 감정과는 약간 다른 맥락 위에 놓여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이성교제는 “남녀 상호간의 지적, 정서적 성숙을 돕고 바른 인격형성과 융합을 돕는 인간 성장의 사회학습”으로, 특히 “여고시절의 이성교제는 결혼준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56) 『여고생들의 순결의 밀실』, 앞의 책, 130~131쪽.

57) 『여학생 순결세미나-신성불가침, 처녀성』, 앞의 책, 246~247쪽;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처녀막 재생’ 수술이라는 의학적 기술 도입에 있다. 여성의 육체가 ‘처녀의 여부’를 더 이상 보장해주지 않게 되면서, 역으로 양심과 윤리적 문제로서 정신적 순결의 가치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여학생을 위한 사랑의 교실-순결은 곧 양심이다』, 앞의 책, 234~237쪽.

58) 1960년대 말부터 남녀의 사랑은 불가사의하고도 행복한 것이며, 섹스를 두 남녀의 커뮤니케이션이라 소개한다. “이달부터 ‘섹스’라고 하는 순결 문제를 구미의 10대誌에서 탈채 전제하게 되었습니다. (...)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일은 생명-살아간다는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일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성. 주우니어에게 보내는 순결교실』, 『여학생』, 1969년 12월, 200~205쪽.

59) 대표적으로 몇 가지 기사만 꼽자면 아래와 같다. 『남녀교제 특집-타인에게 호감을 주는 매력의 체크, 나는 얼마나 스포티하고 차아밍한가?』, 『여학생』, 1970년 1월, 122~131쪽; 『당신의 10년 후의 결혼생활은?』, 『여학생』, 1974년 6월, 160~165쪽; 『당신이 좋아하는 이성의 모습』, 『여학생』, 1981년 10월, 272~275쪽. 『남학생이 본 여성관과 여학생상, 여고생이 본 남성관과 남학생상』, 『여고시대』, 1977년 2월, 70~81쪽; 『남학생과 함께 보는 페이지-남녀 마음 철저 대 연구』, 『여고시대』, 1981년 6월, 138~141쪽; 『남학생과 함께 보는 페이지-전화거는 태도로 당신을 점친다, 혈액형으로 알아보는 파트너 심리분석』, 1982년 4월, 280~284쪽 등이 있다.

접촉하고 사귀는 가운데 각자의 특유한 이질성을 발견하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종 성교육 담론들은 이성교제를 단 둘이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룹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권장했다.<sup>60)</sup> 이성교제에 대한 당시 학생들의 생각은 교제의 경험 여부를 묻는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에서 상당한 인원이 이성교제를 하지만, '가볍게 만나거나 본격적 교제는 아니라고'<sup>61)</sup> 설명한다. 85년에 『여고시대』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는 "당신은 이성과 교제시 신체적인 접촉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으로 "1. 손을 잡는 것 (중 62.9% 고 68.7%), 2. 키스 (중 18.3% 고 15.1%), 3. 키스 이상 (중 7.2% 고 5.1%), 4. 한계를 두기가 곤란하다 (중 11.7% 고 11.1%)"라고 제시하기도 했다.<sup>62)</sup> 신체접촉의 한계를 설문조사로 묻는다는 것은, 접촉의 가능성은 인정하되 그 한계가 있어야 함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한계선이 어디에 있는지 애매모호하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친우관계라 말할 수 없는, 잠재적으로 '섹슈얼한 스킨십이 가능한' 관계이면서도 그러한 관계가 사회적으로 용인된 연애-사랑의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는 다소 모호한 지점에 머물러야 했다. 연애와 결혼의 과정을 거치기 이전, 이성을 관찰하고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며 나 자신을 탐구하고 상대 이성을 이해하여 장차 자신에게 적합한 이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하는 주체로 지적된 이는 여학생이었다. 잡지의 표지는 해당 호의 주요 기사를 소개함과 동시에 독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마케팅의 수단이다. 1981년 7월 『여학생』의 표지는 "여자의 필수과목, 성지식 테스트"라는 문구가, 8월은 "여름에 조심합시다, 남자들의 성충동"이, 1982년 1월은 "순결 세미나: 처녀성", 2월은 "순결 세미나:

60) 『여고생들의 순결의 밀실』, 앞의 책, 127-130쪽; 그밖에도 『주니어를 위한 사랑의 에티켓』, 『여학생』, 1970년 11월, 133쪽; 『남녀 교제 백과, 젊음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제를』, 『여학생』, 1978년 10월, 334~337쪽 등 참조.

61) 『특집/이성교제 좌담회』, 『여학생』, 1976년 7월, 110~112쪽.

62) 『여중고생 의식구조조사 결과 발표』, 『여고시대』, 1985년 5월, 156쪽.

남자를 알자”가 크게 적혀있었다. 이러한 표지와 남녀학생의 이상형을 탐구하는 기사들은 여학생을 연애 가능한 주체로 대상화한 것도 아니고, 섹슈얼리티를 통계화해 감시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잡지의 주 독자인 여학생이 이성 의식을 정립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용이하도록 제공한 콘텐츠의 일종이었던 것이다.

1970~80년대의 잡지 『여학생』, 『여고시대』는 주 독자인 여학생을 이성교제의 ‘담당자’로 여겼으며, 이들을 위한 성교육 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각종 이상형 테스트와 앙케이트도 그런 콘텐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쯤에서 『여학생』 창간 200호 기념으로 이루어진 방담 중, 잡지 주간이었던 ‘박석준’<sup>63)</sup>의 회고를 눈여겨볼 만하다. 그가 데스크를 맡았던 60년대 말에는 잡지의 체제를 “보수적인 교양학습 일면도에서 흥미 위주로 다양하게 바꾸었”다고 한다. “애들에게 읽히는 능동적인 편집자세를 강력히 주장”했던 그는, “덕분에 <여학생> 부수는 10만부 이상으로 배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김민숙’ 부장이 편집장이 된 『여학생』 3기는 라이벌 잡지가 창간되며 경쟁하는 가운데 또 다른 편집체계를 꾸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sup>64)</sup> 잡지의 판권지를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김민숙이 편집장이 된 『여학생』의 3기는 대략 1980년 4~5월 즈음으로 보인다. 『여학생』은 1981년부터 A5 판형을 B5 판형으로 바꾸고 점차 컬러 화보 페이지와 연애 기사의 양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1982년 1월호를 ‘혁신호’라 명명하며 한자 제호 『女學生』을 한글화하며 ‘호화 스타 캐린더’를 부록으로 제공했다.<sup>65)</sup> 경쟁지인 『여고시대』 역시 1981년 6월, 잡지를 개편하며 교양·학습 특집과 여행기, 수기, 연재소설, 문학상 지면을 축소하고, 화제의 영화와 국내외 연예인 화보 특집·미용 페이지 등을 신설하였다.<sup>66)</sup>

63) 여학생사 편집부장이었던 박석준은 1970년 11월 2일 한국잡지협회 개회로 열린 한국잡지상에서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하였다. 『2일 잡지의 날 기념식-신문회관 서 5명 시상』, 『동아일보』, 1970년 10월 31일, 5쪽.

64) 『지령 200호 기념 전직 여기자 방담』, 『여학생』, 1982년 6월, 64쪽.

65) 『목차』, 『여학생』, 1981년 12월.

66) “여고시대는 이 땅의 십대들에게 꿈과 교양을 심어주는 양심의 잡지입니다. 신록의 계절 새롭게 바뀐 내용에 놀라지 마세요.”, 『목차』, 『여고시대』, 1981년 6월.



[그림 1] “책속의 보너스”, 『여학생』, 1984년 2월.

『여학생』과 『여고시대』와 같은 잡지들은 별책부록의 형태로 얇은 책자를 증정했다. 주로 학업과 관계된 내용이나 짧은 소설 등을 담아 증명하는 ‘답’의 역할을 하던 부록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엔터테인먼트 성격의 콘텐츠를 다루는 ‘책 속 부록’의 형태로 등장한다. 『여고시대』는 창간 7주년을 맞이한 1983년 5월에 ‘책속의 새 잡지-하이틴’을 기획해 본격적으로 “연예·오락·스포츠 종합지”를 표방했다.<sup>67)</sup> 여성 청소년의 교양·학습지라는 『여고시대』의 외피를 쓰고, ‘책속의 잡지-하이틴’이라는 형태로 본격적인 엔터테인먼트란을 제시

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국내의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의 화보와 일거수일투족을 신던 ‘책속의 잡지-하이틴’ 안에 성과 관련된 이슈를 포함했다는 것이다.<sup>68)</sup> 『여학생』 역시 1983년 6월호부터 목차에서 책속 부록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부록에서는 “전영록이 선정한 최신 히트곡”과 “긴급입수한 프랑스 이동용 성 교육책”과 같이 방송·연예 관련 기사는 물론 성교육 자료, 이성 교제와 관련된 에티켓, 테스트를 다루었다. 잡지 안의 부록이라고 광고된 만큼, 본래 잡지와 분철한 상태로 제시되지 않았고 대신 [그림 1]에서 확인 가능한 바와 같이 점차 소책자로 크기를 줄여 출간되었다. 당시 책 속 부록의 콘텐츠들은 하이틴 독자 유인에 매우 중요한 출판 전략이라 여겨졌는데, 1980년대 중후반에는 『여학생』, 『여고시대』뿐만 아니라 『학생중앙』, 『쥬니어』와 같은 하이틴 잡지들의 ‘책 속 부록’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졌다.<sup>69)</sup>

67) 『목차』, 『여고시대』, 1983년 5월.

68) 1983년 5월에는 ‘시험관 아기’에 대한 기사가, 6월과 1984년 1월에는 ‘순결교실’이 ‘책속의 책-하이틴’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83년 7월부터 12월의 잡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확인을 하지 못했다.

요컨대 1970년대부터 잡지에서 유통되기 시작한 성교육 담론은 “보수적인 교양학습”의 주입보다, 동시대 여학생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전략으로 전파되고 있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저널리즘과 미디어 매체 산업에서 완전히 여학생을 하이틴이라 명명하면서, 성교육 콘텐츠는 ‘소비주체’ 하이틴 독자 유입에 큰 요인이 되었다.

성교육 콘텐츠의 엔터테인먼트 전략 중 가장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서사화’ 즉 ‘스토리텔링’이다. 각종 성교육 콘텐츠는 ‘어딘가에 존재할 것만 같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캐릭터로 등장시키고, 이들이 겪은 일화를 전달하는 스토리텔링으로 사회의 각종 성담론들을 전달해냈다. 이러한 서사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1970년대 중후반부터 동시대 청소년의 삶을 픽션화한 하이틴 장르의 영향이 크다. <진짜진짜 잊지마>(1976)의 성공 이후 후속작인 <진짜진짜 미안해>(1976), <진짜진짜 좋아해>(1978)는 물론, <고교 알개>(1977)를 대표로 한 각종 하이틴 영화 붐이 일었다. 유인호는 하이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표상의 대상이 표상 수요자와 일치”하는 것이었다고 밝힘과 동시에, 영화 체험이라는 ‘시각성’을 거론하며 영화를 보러 온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집단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라 설명한다.<sup>70)</sup> 그런데 1976년부터 일어나게 된 하이틴 영화 이전부터, 이미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등장하는 TV프로그램이 다수 존재했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MBC에서 1975년 7월 8일부터 1980년 2월 26일까지 방영되었던 <제3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다.

이병훈 PD가 연출한 <제3교실>(1975년 7월 8일부터 1980년 2월 26일까지 방영)은 동시대 청소년 문제를 극화해 “오락성은 물론 보도성과 교양성에도 초점을 맞춘” 단막극으로 화제가 되었다. 10대 청소년의 비행문제를 다루

69) 한 기사에서는 “학생 잡지들이 본지의 내용 중 일부를 부록으로 내는 등 심한 부록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학생잡지사 대표들은 얼마 전 과당경쟁을 하지 말고 부록은 1권만 내자고 구두약속을 했으나 이번 7월호의 경우 부록을 3권이나 낸 곳도 있어 앞으로 부록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 진단했다. “과당경쟁으로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 『학생잡지 부록경쟁 치열』, 『동아일보』, 1985년 7월 15일, 9쪽.

70) 유인호, 앞의 글, 23~26쪽.

되 두 명의 카운슬러 교사가 선도해간다는 내용의 이 드라마는 첫 방영된 그 해 한국방송윤리위원회상 텔레비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sup>71)</sup> 『여고시대』는 76년 5월 창간호부터 각종 방송사의 하이틴 대상 프로그램(KBS의 <우리들 세계>, MBC의 <제3교실>, TBC의 <여고생 퀴즈> 등)을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실어 나르며, 화제의 프로그램에 대한 하이틴의 관심에 부응했다. 특히 1976년 6월부터 1977년 5월까지, <제3교실>의 관심을 등에 업고, 이 프로그램의 극본가로 참여한 ‘양인자’가 쓴 ‘카운슬링 소설’이 연재되었다.

MBC의 <제3교실>이 당대 청소년의 고민과 계도의 과정을 소재로 삼고 있는 만큼, 중·고등학교의 상담교사들을 찾아 협조를 부탁하며 스토리를 구성하기도 했다.<sup>72)</sup> 실제 하이틴의 삶과 고민을 소재로 삼아 픽션으로 구성했다는 방식은 서사적 개연성의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를 준다. 하이틴 장르 붐 이전부터, 여학생을 주 독자로 삼았던 『여학생』과 『여고시대』는 각각 교양·학습 정보 전달을 위해 상담의 과정을 지면으로 옮긴 ‘카운슬링/상담란’ 지면을 보유하고, 여학생의 ‘수기’와 기타 일화들을 실었다. 실제 여학생의 고민을 소재로 삼은 이 기사들은 사실 논픽션과 픽션의 경계 위에 놓여 있었다. ‘있음직한’ 이야기로 기사를 구성한 것은 <제3교실>처럼 교양과 오락의 성격을 동시에 피하려는 전략이었다.

성교육 콘텐츠의 ‘서사화’ 전략 역시 처음에는 교양 및 카운슬링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앞장에서도 언급했지만 1968년 9월호 잡지 『여학생』은 중앙교육연구소의 ‘순결교육 지침서’를 토대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성교육을

71) 초기 방영 당시 김항명, 나연숙이 극본을 맡았고, 배우 이정길과 이효춘이 카운슬러 교사 역할을, 안양영화예술학교 학생들이 배역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해가 바뀌면서, 전문 배우가 학생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이고, 극본가도 양인자와 같이 여러 명이 더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병훈은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직업소녀, 재수생 또는 대학초년생들에 이르기까지 탈선 10대의 문제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해와 설득으로 해결해나가는 카운셀링을 드라마에 대입시켜 오락적인 요소까지 충분히 살리고 있다는 데 이 프로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MBC TV <제3교실>』, 『경향신문』, 1975년 7월 4일, 5쪽; 『올해 방류상 TV부문 MBC <제3교실>』, 『경향신문』, 1975년 9월 25일, 8쪽.

72) 그러나 프리비서의 문제로 협조 얻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MBV TV <제3교실> 작가 등 상담 교사들 비협조로 소재찾기에 진땀 흘려』, 『경향신문』, 1975년 7월 8일, 5쪽.

포함하겠다는 문교부의 발표에 특집 기사를 낸 바 있다. 성교육의 정의와 문교부의 결정에 대한 배경, 그리고 성교육이 가져올 여러 반응들을 가늠하며 실제 성교육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한 뒤에 ‘픽션’을 하나 소개한다. “이른 사랑의 결말”<sup>73)</sup>이라는 이 이야기는, 열여덟 살 여고생 ‘김유미’가 미혼모가 되어 세상의 눈을 피해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픽션’에 대해 잡지는 “이 이야기는 한 소녀의 무지와 무쾌도의 결과이라 생각하기가 쉽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기도 한 십대의 성문제! / 필자의 주변에 십년 전 실제 사건을 픽션화 해 본 것이다. / 이것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성교육의 무관심에서 온 것으로만 볼 수 있을 것인가?”<sup>74)</sup>라며, ‘김유미’의 저 ‘비극적’ 삶이 성에 대한 무지에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가령 개인의 도덕성과 같은) 다른 문제인 것인지 질문을 던진다. 질문의 방향은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논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픽션’, ‘서사화’된 콘텐츠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추상적 개념을 들거나 명제들에 비평을 가하는 것이 아닌, 이 잡지의 독자와 똑같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구축해 여학생(하이틴)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논의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청년 성교육에 대한 논의와, 실제 성교육의 내용을 서사화하여 교육적·계도적 효과를 노린 콘텐츠로는 대표적으로 구혜영의 『진아의 편지』(1974)가 있다. 구혜영은 여대생 주인공 ‘진아’와 그의 기숙사 친구들의 연애 상담을 서간체로 담은 『진아의 편지』를 출간, 인기에 힘입어 영화 <진아의 편지>(1974)가 개봉되기도 했다. 구혜영은, “나날이 증가일로로 걷는 ‘미혼녀’의 문제가 하나의 사회문제로까지 번져 나가는 추세 속에서” “글라디스 D 솔츠 여사가 쓴 ‘Letters to Jane’”이라는 책을 접한 뒤, 남녀교제 방법을 모녀간의 편지라는 형식으로 전달해 젊은 독자들을 감화시킬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전한다.<sup>75)</sup> 학교의 ‘순결교육’(성교육)보다 적극적인 콘텐츠가 필요하

73) 권웅, 『이른 사랑의 결말-픽션으로 보는 필요성, 슬픈 보고서』, 『여학생』, 1968년 9월, 68~75쪽.

74) 권웅, 위의 책, 68~69쪽.

75) 구혜영, 『진아의 편지』, 창원사, 1974, 17쪽.

다고 느꼈던 구혜영의 전략은 효력이 있었다. 출간 후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보였고, 지속적으로 영화화 러브콜이 이어지며 출간 3개월 만에 동아출행에 영화화 판권을 팔았던 것이다.<sup>76)</sup> 영화는 그 해 문공부가 지정하는 3·4분기 우수국산영화로 뽑히기도 했다.<sup>77)</sup> 『진아의 편지』의 인기로 힘입어, 구혜영은 『일간스포츠』에서 ‘진아 엄마’인 ‘이민희’ 역할을 하며 젊은 청년과 청소년들의 성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창구를 통해 받은 8백여 통의 편지 중에 대표적 사례로 50여 회를 상담, 게재했고 이 내용을 묶어낸 책이 바로 『진아 엄마에게』(1975)였다.<sup>78)</sup>

『진아 엄마에게』는 실제 하이틴이 보낸 상담 편지를 토대로 ‘이민희’라는 캐릭터를 내세워 카운슬링의 과정을 그대로 옮겨 보여주는 형태이지만, 질문과 답변의 과정에서 익명의 하이틴이 겪은 일화들이 다수 소개되는 등 여전히 ‘이야기’가 중요한 위치에 놓인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구혜영의 성교육/상담은 1980년대 하이틴 잡지 지면으로까지 이어졌다. 구혜영은 잡지 『여학생』에서 1982년 2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진아엄 대화’라는 코너를 맡게 된다. 이 코너는 『진아의 편지』의 주인공 ‘진아’의 엄마인 ‘이민희’ 여사가, 조카인 ‘지영’과 그의 반 친구들의 성, 이성 교제와 관련된 고민을 들어준다는 스토리로, 『진아의 편지』의 서사와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후 잡지 독자들의 질문이 쇄도하면서, 구혜영은 ‘이민희’의 탈을 벗고 카운슬링을 지속했다.

물론 성교육 제반의 논제들을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만드는 경우는 작가 개인이나 상업잡지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한국여성개발원, 대한가족계획협회 등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영화 및 비디오 필름을 제작했는데 청소년이나 여성 근로자의 이야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교육 자료는 청소년을 지도해야 하는 학부모, 교사를 향한 것이었다.<sup>79)</sup> 실제 하이틴이 밀접하게 성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

76) 『동아출행서 영화화-구혜영작 진아편지』, 『매일경제』, 1974년 6월 1일, 8쪽.

77) 『문공부서 선정 <토지>등 3편에 외화쿼터』, 『경향신문』, 1974년 10월 23일, 8쪽.

78) 구혜영, 『진아 엄마에게』, 창원사, 1975, 309쪽.

79) 한국여성개발원은 <바람의 그림자>라는 영화를 제작,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청소년 교육용 3편의 영



있었던 것은 하이틴 잡지를 통해서였다. 1980년대 하이틴 잡지에서는 스토리텔링 형태의 성교육 콘텐츠가 다양하게 게재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하이틴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여러 사회적 사건들을 경계하고 하이틴에게 경고하는 형태의 서사가 다수였다.

1980년대의 하이틴 잡지는 7~8월이면 으레, 여름방학 철에 야외활동이 급증하면서 생겨나는 사건·사고를 경계하는 기사를 실었다. 예컨대 『여학생』은 1981년 8월에 ‘남자들의 성충동’을 경고하는 특집 기사를 다루면서, 바캉스 철에 당할 수 있는 위험 사례를 소개하였다.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다가 한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중절 수술의 충격으로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는 고등학생 K양의 사연과, 아들이 또래 친구들과 사이의 영웅 심리로 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되어 충격을 받았다는 학부모의 사연, 그리고 보수적인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서를 나왔다가 야외 지도교사에 걸려 가출했다가 미군부대 주둔 지역의 윤락여성이 되었다는 사례를 각각 나열한다.<sup>80)</sup> 이처럼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무수한 ‘일화’들은 일차적으로 하이틴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사춘기의 반항심으로 미혼모가 되거나, 세상 물정에 어두워 성을 착취당하고 죄책감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식의 서사<sup>81)</sup>들은 사회가 용인하는 ‘낭만적 사랑’과 ‘가족의 정상성’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서사화하여 보여준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이틴 성교육 콘텐츠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서사가 가진 양면성에 주목해야 한다. 하이틴 잡지는 성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화, 3편의 비디오필름, 6편의 슬라이드 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대한가족계획협회가 만든 영상물은 <꽃구름 먹구름>, <파도타기>(여성 근로자가 미혼모가 되거나, 반복적인 임신 인공중절로 임신 중독에 걸린다는 내용) 그리고 <비누방울>, <가꾸어 꽃필때까지>, <내일은 태양>, <내일을 위하여>(청소년 대상의 이성교제, 임신, 성병에 대한 지식 전달) 등으로 알려져 있다. 『성교육 시청각교재 제작 활발』, 『동아일보』, 1985년 11월 30일, 11쪽;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지상 영화, ‘바람의 그림자’』, 『여학생』, 1986년 5월, 124~127쪽.

- 80) 『바캉스 리포트-조심하세요! 야외생활에 따르는 위험을』, 『여학생』, 1981년 8월, 268~271쪽.  
 81) 하이틴 잡지에는 이런 형태의 기사들이 다수 게재되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어느 미혼모의 회한에 찬 고백수기-내 가슴에 안은 슬픈 별 하나』, 『여학생』, 1984년 1월, 122~123쪽; 『사건 여학생1. ‘그리움’으로 물든 죽음의 흔적』, 『여학생』, 1986년 1월, 120~123쪽; 『10대 미혼모들의 실태』, 『여학생』, 1986년 8월, 잡지 속 부록에 게재; 『여고시대 긴급르뎀1. 무너져가는 10대의 성』, 『여고시대』, 1984년 2월, 152~157쪽 등.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고, 올바른 성의식을 교육하기 위해 각종 성교육 콘텐츠를 배치했다. 또한 보수적인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의식하며 하이틴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고의 의미를 포함하는 ‘불행의 서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잡지의 전략은 실상 독자들의 관심과 필요보다 훨씬 과잉된 형태로 나타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85년에 공개된 『여고시대』의 ‘여중고생 의식구조조사’에서, “‘성 자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이란 질문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여중생 47.6%, 여고생 45.5%)”이 대다수였고 “성경험에 대한 질문에서도 ‘없다’가 단연 높아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는 청소년 성범죄와는 다소 상충하는 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결과를 소개한 바 있다.<sup>82)</sup> 성에 대해 다소 ‘냉담한’ 하이틴의 반응은 잡지에 편성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가령 “학생잡지가 주로 다루었으면 하는 것”에 대해 “1. 진학내용 (18.8%) / 2. 교양·시사면의 확대 (42.2%) / 3. 연예인에 대한 기사 (21.5%) / 4. 남녀이성교제와 성교육 (17.5%)”이었고, “잡지 특히 학생 잡지에 실린 성에 관한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는, “1. 더 진보된 내용도 괜찮다고 느낀다. (18.3%)/2. 어떤 때는 좀 낫뜨거울 때도 있다. (29.4%)/ 3. 지금 상태도 우리 수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45.4%) / 4. 없는 것이 좋겠다. (7%)”라는 응답을 보여준 바 있다.<sup>83)</sup>

요컨대 잡지가 규정했던 하이틴의 모습과 다르게 실제 여성 중고교학생은 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 유달리 침예하게 고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회가 ‘범람하는 청소년 성범죄’라고 규정할 만한 성 의식을 가지기는커녕, 오히려 하이틴은 자신들이 보는 잡지가 성을 다루는 것에 대해 다소 보수적이라 할 만한 입장을 표현하기도 했다. 하이틴잡지에 성 관련 기사가 끊이지 않았던 것은, ‘성·교육’, ‘카운슬러’라는 이름으로 여과 없이 성담론을 게재해 교양의 외피를 두른 ‘은밀한’ 오락을 콘텐츠에 담아내려는 전략이었다고 보

82) 『여중고생 의식구조조사 결과 발표』, 앞의 책, 155쪽.

83) 본문에 인용한 문항 비율은 여중생과 여고생 전체를 합한 값이다. 『여중고생의 가치관과 의식구조조사 결과 발표』, 『여고시대』, 1986년 6월, 156쪽.

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가령 이성교제와 관련된 카운슬링 기사인데, 각종 질문들을 “순결을 그에게 바쳤어요”, “소중한 순결을 잃었어요”, “나는 레즈 비연인가?”, “친삼촌을 좋아합니다”, “자위행위를 하고 있어요” 따위의 헤드라인으로 뽑아 강조하는 형태의 기사를 교육을 위한 콘텐츠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sup>84)</sup> 특히 ‘자위’라는 주제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주인공이 생활 속에서 겪었던 ‘은밀한’ 즐거움을 공공연하게 드러낸다.<sup>85)</sup>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독자인 하이틴이 성애를 상상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당시의 언론은 하이틴 잡지의 전략을,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다 못해 상업적 이득으로 연결한 “섹스 상업주의”라 명명하며 비판했다.<sup>86)</sup> 또한 당시 정부는 “급진좌경운동권”이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의식화 편지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청소년의 문화를 포르노화”하고 있다면서 “도서잡지윤리위원회와 잡지협회 합동으로 청소년소위(가칭)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sup>87)</sup> 실제로 운동권이 청소년 “의식화”를 위해 일으킨 운동과 하이틴 잡지의 “포르노화”가 어떤 연관성이 존재했던 것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대신 운동권에 대한 정부의 배타적 움직임이 1980년대 하이틴 잡지의 성교육 콘텐츠와 그 향유자/소비자에게도 비슷하게 작동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60년대부터 꾸준히 전개되었던 ‘낭만적 사랑’과 ‘정상 가족’의 기준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이러한 콘텐츠들이 생산되었다는 것이다. 앞에서 다룬 ‘불행 서사’가 (성적으로) 불량한 소녀의 이미지를 콘텐츠화 하면서도 결국 ‘성의 탈선’이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노골적인’ 헤드라인과 스토리텔링으로 독자의 주목을 이끌면서도 성적 충동을 유예하

84) 『이성교제 Q&A 대특집』, 『여고시대』, 1981년 10월, 84~95쪽.

85) 『사춘기의 비밀, 그리고 모험』, 『여고시대』, 1976년 8월, 124쪽; 『사랑의 교육-제1화 자위』, 『여고시대』, 1984년 6월, 183~186쪽.

86) 『청소년잡지 통속화 줄달음』, 『동아일보』, 1985년 5월 23일, 7쪽; 『섹스상업주의에 물든 학생잡지』, 『경향신문』, 1986년 2월 28일, 11쪽.

87)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반〉설치』, 『경향신문』, 1986년 8월 4일, 1쪽.

고 ‘적당한’ 이성 교제를 통과해야 후일에 ‘낭만적인’ 사랑이 찾아온다는 것. 이러한 담론의 이중성이 1980년대 성교육 콘텐츠를 관통하고 있었다.

#### 4. 낭만의 집합체, 할리퀸 로맨스의 ‘교육’

1979년에 번역되어 읽힌 문고본 판형의 소설, 할리퀸 로맨스는 하이틴을 대상으로 한 출판물 중에서도 성을 왜곡하여 그려내는 대표적인 서적으로 여겨졌다. 1990년대 초에 발행된 성교육 도서를 살펴보면, 학교 앞 문방구나 근처 서점에서 퇴폐적이고 비윤리적인 기사를 신고 있는 성인잡지와 연예정보지와 같은 “저질 출판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할리퀸 로맨스를 비롯한 문고본 로맨스 시리즈 역시 문제적이라 지적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국에서 펴낸 성교육 도서에서는, 할리퀸 로맨스가 “성행위를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성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 “서구의 황금만능적·쾌락적·이기적 사고방식을 주입”시켜 “외모를 중시하고 이혼의 자유를 주장하며 성개방과 부에 대한 선망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다.<sup>88)</sup> 다른 성교육 도서에서도 비슷한 평을 내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국을 통해 30여 회 성교육 강좌를 진행했던 강사 이화연의 성교육 지침서는 아예 할리퀸 로맨스가 가진 문제점을 여섯 개의 조항으로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지나치게 육감적이며 선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

둘째, 외국 문화라면 무조건 동경하는 문화적 사대주의의 독소를 모르는 사이에 심어 준다.

셋째, 대부분의 소설에 등장하는 남녀 주인공들은 모두 완벽한 조건을 가진 인물들로 묘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이상향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8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국 편저, 『성교육 교과서』, 동지, 1990, 178쪽.

넷째, 그릇된 이성관을 갖도록 한다.

다섯째, 진정한 사랑의 개념이 왜곡되고 있다.

여섯째,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문화, 배금주의와 물질 숭배를 조장하고 있다.<sup>89)</sup>

이화연은 1987년 이후 출판 자유화 조치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대중 잡지가 점차 음란화 되고 해외의 음란 출판물이 유입되는 정황을 언급한다.<sup>90)</sup> 이러한 맥락에서 성애 표현이 적나라한 편이었던 할리퀸 로맨스가 ‘외설 도서’로 선정된 것이다.

할리퀸 로맨스가 활발하게 유통되던 1984년-1986년 즈음, 하이틴 잡지도 문고본 로맨스 도서를 ‘악서’로 분류했다. ‘악서’인 이유는 앞에 성교육 도서들이 나열한 이유와 진배없다. “선정적”인 소설의 제목, 비현실적 배경 속에서 상류층의 연애를 보며 “요행수”를 바라게 되는 “천편일률적”인 구조의 이야기, 게다가 “날림 번역과 엉터리 제작”으로 오로지 상업성만을 노린 출판이라는 것이다. 하이틴이 ‘악서’를 읽는 이유에 대해 “학생들이 책을 선정하는 안목도 부족하지만 읽을 만한 책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는 의견과 함께, 나름대로 독서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도 있지만, 무엇보다 “학생들 자신이 올바른 독서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하였다.<sup>91)</sup>

할리퀸 로맨스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것을 ‘폭로’하며 독자들을 경고한 것과 다르게, 하이틴 잡지는 할리퀸 로맨스 출간 초기인 1980년부터 꾸준히 광고 지면을 할애해왔다.<sup>92)</sup> 심지어 할리퀸 로맨스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은 해당 호에서도 할리퀸 로맨스의 광고 지면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sup>93)</sup> 실제로 하이틴 잡지는 연애와 사랑에 대한 출판물 광고에 지면 다수를 할애했으

89) 각 조항에 대한 설명 생략, 책에서 제시하는 조항만을 인용하였다. 이화연,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 어떻게 할까』, 돌베개, 1991, 225~226쪽.

90) 이화연, 앞의 책, 222~223쪽.

91) 『긴급진단, 여학생 독서실태』, 『여학생』, 1984년 11월, 291~293쪽; 『지속한 사랑 이야기에 멍드는 푸른 가슴』, 『여학생』, 1986년 3월, 173~177쪽.

92) 『여학생』은 1980년 7월부터, 『여고시대』는 11월부터 삼중당의 하이틴 로맨스 문고를 광고했다.

93) 1984년 11월 『여학생』에는 ‘하이틴 로맨스’(222~223쪽), ‘실루엣 로맨스’(233쪽), ‘애플북스’(239쪽)의 광고를, 1986년 3월 『여학생』에는 ‘하이틴 로맨스’(83쪽)의 광고를 확인할 수 있다.

며, 할리퀸 로맨스는 꾸준히 그 지면을 활용해온 바 있다. 할리퀸 로맨스는 독자들의 책 구매를 독려하고자 ‘사은 현상 퀴즈’와 같은 이벤트를 실시했는데, 이벤트 소개와 당첨자 발표를 『여학생』과 『여고시대』 지면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sup>94)</sup> 게다가 [그림 2]와 같이 할리퀸 로맨스의 표지 디자인을 본 따 잡지의 ‘특집 수기’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림 2]의 좌우를 각자 비교해보면, 잡지 상단의 컬러 줄무늬와 ‘Highteen Romance’라는 이탤릭 영어 표기가 할리퀸 로맨스(당시에는 하이틴 로맨스)의 표지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쯤 되면 하이틴 잡지와 할리퀸 로맨스가 공모 관계(?)였다고 말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림 2] (좌) 『여고시대』, 1985년 1월, 138쪽; (우) 할리퀸 로맨스 표지

1980년대 하이틴 잡지의 ‘음란화’, 그리고 ‘외설적인’ 할리퀸 로맨스를 비

94) 『여고시대』, 1985년 1월, 66~67쪽; 『여고시대』, 1985년 8월, 54~55쪽 등.

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이틴 대상의 성교육 콘텐츠가 만연한 가운데, 할리퀸 로맨스가 각광받은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 여길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말 당연한 일이었을까? 할리퀸 로맨스는 미·서구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출간되어 일본어 증역을 거치며 유입된, 나름 ‘국제적인’ 텍스트다. 반면 1980년대 하이틴 잡지의 성교육 콘텐츠는 교복을 입은 한국 (여)학생을 독자로 상정하고, 바로 그 이미지를 상상하게끔 서사화 되기도 했다. 게다가 1960년대부터 한국 사회가 규격화해온 ‘낭만적 사랑’ 담론, ‘정상 가족’의 담론을 견고하게 담아냄으로써, 하이틴의 섹슈얼리티를 긍정하면서도 유예했다. 할리퀸 로맨스는 이러한 성교육 콘텐츠의 아이러니의 어떤 부분과 어떻게 조응하거나 대립된 위치에 있었는가?

할리퀸 로맨스가 당대 성교육이 그려내던 남성상과 여성상을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는 표상으로 상상하게끔 만든 매체였고, 때문에 ‘저질 출판물’이라는 낙인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읽혔음을 밝히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하이틴 잡지에 실린 성교육 콘텐츠의 담론에 대응하거나 상반되는 지점을 짚어내며, 지금까지 ‘저질 출판물’로 분류되어왔던 할리퀸 로맨스가 1980년대 하이틴 성교육 담론과 무관하지 않은 텍스트였음을 확인할 것이다.

### 1) 위험한 타자, 남성에 대한 지침서

일반적으로 로맨스의 남자주인공은 현실에서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인간상으로 그려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주라는 여성들이 로맨스를 읽는 이유가, “완벽한 남자에 대한 환상”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남자 주인공은 기본적으로 강한 남성성”을 가지고 있되, 약한 내면을 드러내기도 하고 여자 주인공에게 부드럽고 자상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는, “모순적인 성격과 자질”을 “동시에 구현해내는 완벽남”이라는 것이다.<sup>95)</sup>

95) 이주라·진산, 『웹소설 작가를 위한 장르 가이드』 1. 로맨스, 북바이북, 2015, 83~85쪽.

그렇다면 과연 할리퀸 로맨스의 남자주인공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손진원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남성성이 이성적이고 용기 있으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이며, 자기주장이 강하고, 폭력적인 것이라면” 이 모든 조건이 할리퀸 로맨스의 남자 주인공에 속한다고 설명한다.<sup>96)</sup> 할리퀸 로맨스 중에서도 중동의 남자 주인공과의 사랑을 다룬 작품과 만화화를 통해 오리엔탈리즘 젠더 담론이 재구성되었음을 밝힌 홍신실·손윤미는, 동양(중동)을 대표하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정복하고 지배”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그리고 성적으로 백인 남성들과의 비교 우위를 점”하는 인물로 등장한다고 설명한다.<sup>97)</sup> 즉, 다른 로맨스의 남자 주인공과 다르게 할리퀸의 남자 주인공은 모순된 성격을 조화시키는 ‘완벽남’이기보다는 ‘남성성’ 바로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홍신실·손윤미는 제국주의 담론과 오리엔탈리즘이 ‘남성적 유럽-여성적 비유럽(동양)’의 구분을 지었던 것과 비교해, 할리퀸의 중동 로맨스는 “표면적으로는 오리엔탈리즘의 젠더 구조를 전복하는 것 같지만 서양-주체로서의 잠재적 오리엔탈리즘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소개한다.

중동의 남자 주인공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할리퀸 로맨스의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을 육체적으로 정복하고 지배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전형적인 젠더 이미지는 비단 동양(중동)과 같은 오리엔탈리즘으로만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 그리스와 같은 지중해/남부 유럽 국가 출신의 남자 주인공이나 혹은 중남미·아프리카의 유럽인 크리올 등 오랜 시간 비-서구유럽 지역에서 터를 잡고 육체노동을 한 인물들로 등장한다. 이들은 미·서구 기독교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자 주인공과 다르게 ‘이교도적’, ‘야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여자 주인공을 육체적으로 유혹하고 소유하며 억압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인 것처럼 묘사된다.

96) 손진원, 『로맨스, 전복의 가능성을 묻다』, 『글 쓰는 여자는 위험하다』, 들녘, 2019, 165쪽.

97) 홍신실·손윤미, 『할리퀸 소설의 만화화와 오리엔탈리즘 젠더 담론의 재구성』, 『영어영문학』 제 17권 3호, 미래영어영문학회, 2012, 106~117쪽.



그는 영국에서 교육을 받아 교양은 있었지만 유럽 사람과는 전혀 다른 소양을 갖추고 있었다. 물론 성격이나 품모도 달랐다. 즉, 그는 이교도인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리스인이 갖는 불 같은 정열적인 기질도 다분히 있었다. 그것은 고대 이교의 신들의 시대부터 있던 소유벽과 연관지어 있었다. 그리스의 남자들은 여자를 소유했다.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며 재산이었다. 여자는 전통적으로 남편의 명령에 절대 복종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여자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따르고, 남편의 말을 규율로 기억해 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sup>98)</sup>

“유럽 사람과는 전혀 다른 소양”을 가진 남자 주인공은 “이교도”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소유벽”은 다분히 인종과 문화적 특수성에서 기인한 젠더 이미지로 수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리스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출신이든지 간에, 심지어 여자 주인공과 똑같은 미·서구 출신이더라도 할리퀸 로맨스의 남자 주인공은 여성에 대한 육체적 욕망과 소유를 갈망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진정한 ‘남성성’인 것은 변함없다. 단지 ‘미·서구유럽 출신’과 ‘이교도’라는 차별적/오리엔탈리즘적인 잠재적 이미지가 덧씌워진 것은, 위협하고 두려운 존재이며 여성과 단 둘이 있으면 유혹하고 쉽사리 해를 가할 수 있는 ‘남성성’을 ‘이방인’이라는 이름으로 강조하고 정당화하는 수사법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바이올렛 윈스피어는 ‘위험하고도 무서운’ 남자 주인공과의 로맨스를 그려낸 작가로 유명하다.<sup>99)</sup> 『가짜 신부』의 여자 주인공 페니는 사촌 페네라 대신 그리스인 사업가 헤라클리오와 결혼한다. 페네라는 이미 바람을 피워 도주한 상황에서, 예전부터 헤라클리오를 짝사랑하고 있던 페니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는 거짓말을 둘러대며, 그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 위장 결혼을 감행한 것이다. ‘신성한 그리스의 계율’ 상 결혼을 함부로 깨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

98) 앤 햄프슨, 민재상 역, 『악마의 키스』, 삼중당, 1983, 68~69쪽; 원작 제목은 ‘A Kiss from Satan’, 1973년 작이다.

99) 1979년부터 1983년까지 출간된 60권의 할리퀸 로맨스 도서 중에서 바이올렛 윈스피어의 책은 『타오르는 사막』(1980), 『살면서 사랑하며』(1980), 『유혹의 한 때』(1980), 『가짜 신부』(1983), 『사랑과 미움』(1983)으로 총 다섯 권이 번역되었다.

자, 헤라클리온은 페니에게 “도둑년, 사기꾼, 그리고 매춘부야!”라는 폭언을 서슴지 않는다.<sup>100)</sup> 헤라클리온은 아내된 도리를 요구하며 페니와 스킨십을 나누고, 지속적으로 여자 주인공을 ‘창부’, ‘매춘부’라고 지칭하며 애정 없는 결혼을 지속한다. 『사랑과 미움』의 여자 주인공 캐롤은, 쌍둥이 여동생 시나라와 자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워 낳은 테리를 친아들처럼 키운다. 시나라와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고, 가난하게 테리를 키우던 캐롤은 도움을 받아볼 심산으로 남편의 친척들이 있는 이탈리아를 방문한다. 남자 주인공은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귀족 집안의 가주이자 죽은 남편의 형, 루돌프다. “잔인한 로마의 백인대장”과도 같은 남자 주인공 앞에서, 캐롤은 “눈부신 금발이 그토록 하얀 피부를 덮었던 그리스도교도의 노예”와 닮았다.<sup>101)</sup>

사실 윈스피어는 1970년에 자신의 로맨스 속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에게) 겁을 주지만 매혹적이다. 그들은 강간을 할 수 있는 부류의 인물로, 한 방에 같이 있는 것이 두려운 남자여야만 한다.”<sup>102)</sup>고 밝혀, 여러 로맨스 독자들의 못매를 맞은 바 있다. 그러나 윈스피어의 작품이 ‘위험한 매력’을 가진 남자 주인공의 극치를 보여주어 대부분의 로맨스 독자들에게 위화감을 주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할리퀸 로맨스의 남자 주인공은 “강간을 할 수 있는 부류”로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 주인공 혹은 더 나아가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이곳을 병사들은 약탈한 새비니인 여자들을 이끌고 지나갔고, 저 언덕에 여자들의 비명이 메아리쳤던 것일까? 여자들의 푸르거나 연초록의 페티코우트가 안장 앞자리에 얹혀 흔들리면 약탈자는 거친 웃음소리를 냈을 것이다. 우람하고 깡마르고 흉터투성이인 병사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그렇게도 지독한 일이었을까? / 캐롤

100) 바이올렛 윈스피어, 진웅기 역, 『가짜 신부』, 삼중당, 1983, 21쪽; 원작 제목은 ‘The Child of Judas’, 1976년 작이다.

101) 바이올렛 윈스피어, 진웅기 역, 『사랑과 미움』, 삼중당, 1983, 46쪽; 원작 제목은 ‘The Sin of Cynara’, 1976년 작이다.

102) 원문은 이렇다. “They frighten but fascinate. They must be the sort of men who are capable of rape : men it’s dangerous to be alone in the room with.” Open Library ([https://openlibrary.org/authors/OL883651A/Violet\\_Winspear](https://openlibrary.org/authors/OL883651A/Violet_Winspear))

의 가슴은 희미하게 떨렸다. 그러한 남자를 나는 속으로 남몰래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태양이 내리쬐는 이 땅에 말을 달리던 용감하고도 위험한 남자들 같은 사내를. 하지만 물론 요즘 시대에는 그런 남자는 있을 턱이 없다.<sup>103)</sup>

위의 인용문처럼, 윈스피어는 여자 주인공 캐롤의 입을 통해 ‘약탈자’이면서도 ‘용감하고도 위험한 남자들 같은 사내’를 사실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독자들에게 묻는다. 곧 할리퀸 로맨스와 자신의 소설을 들춰보는 여성들의 욕망이 바로 ‘이방인’ 남성성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들의 위험한 매력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물론 1970년대의 미·서구 기혼 여성과 1980년대 한국의 10대 여학생이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욕망을 가지고 할리퀸 로맨스를 읽었을 리는 만무하다. 그러나 할리퀸 로맨스가 보여주는 ‘야만적인 남성성’을 지닌 남자 주인공이 80년대 하이틴 독자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인물형이었음은 분명하다.

성교육 콘텐츠는 남성이 ‘위험한 타자’임을 끊임없이 하이틴에게 경고했다. 앞서서도 소개한 ‘바캉스 철의 위험, 사춘기의 반항심, 세상물정이나 성에 대한 무지가 불러올 온갖 비극’의 중심에는 ‘억누르기 힘든 남자의 성충동’이 소개되었다. 가령 “남자들의 성욕은 여자보다 훨씬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설명과, 약간의 자극만으로도 성교가 가능한 상태가 될 정도로 “남자의 성충동은 촉발적”이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이다.<sup>104)</sup> 남성이 성욕을 억제할 수 없는 본능을 타고났다는 견해는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하이틴 잡지의 성교육 콘텐츠 전반에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남성은 ‘공격적’이고 ‘정복욕’에 불타오르며, 여성보다 ‘양면적’이고 ‘질투가 심하며’ 성에 대해 ‘충동적’인데다가 욕구에 사로잡히면 말릴 수 없고, ‘사랑 없이도’ 욕구가 일어나는 존재다.<sup>105)</sup>

103) 바이올렛 윈스피어, 앞의 책(『사랑과 미움』), 21쪽.

104) 『어름에 조심합시다 남자의 성충동』, 『여학생』, 1981년 8월, 262~264쪽.

105) 대표적인 기사만 꼽자면 이하와 같다. 『연애는 왜 위험한가?』, 『여학생』, 1971년 6월, 281쪽; 『여고생들의 순결의 밀실』, 앞의 책, 128~129쪽; 『이성교제 Q&A대특집』, 『여고시대』, 1981년 10월, 95쪽; 『남자를 알아』, 『여학생』, 1982년 2월, 214~215쪽; 『진이암 대화-에 남자친구와 단둘이

성교육 자료를 살펴보면, 인간은 “동물적 생식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본능을 윤리적으로 승화”, 즉 “이성간의 생식 본능이나 성본능의 작용이 윤리화되고, 인격화되어야만 한다.”<sup>106)</sup> 특히 섹스는 사랑이라고 하는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의 과정일 뿐이라서 “사랑의 최종 목적”으로 여기는 것은 위험하고, “동물적인 충동”에 의해 사랑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육체와 사랑의 문제에 대해 충분하고 확고한 의견을 가지기 전까지는 (즉, 성인이 될 때까지) 섹스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sup>107)</sup> 그런데 남성에게 성충동은 본능인 것이기 때문에, 섹스를 포함한 육체적 스킨십에 관련된 경고의 메시지는 언제나 여성을 향해 있었던 것이다.

할리퀸 로맨스는 하이틴 성교육 콘텐츠가 명명한 남성의 특성에서 더 나아가, 미화된 인물로 상상이 가능하도록 표현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할리퀸의 남자 주인공은 성욕이 충만한 인물이고, 오히려 이것을 남성성의 상징이라고 과시하며 여자 주인공에게 끊임없이 섹스어필한다. 게다가 이 충동적인 존재는 작품 내의 세계관에서 외모 및 육체적 매력, 경제적 입지, 사회적 명성, 성적 능력까지 모두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미화되어 있어 위험하면서도 그만큼 매력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한편 여성은 남성과 다르다. 여성은 성에 대한 욕망이 존재할지언정(여성의 욕망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그러한 욕망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로 표현된다. 앤 햄프슨의 『악마의 키스』 속 여자 주인공 게일은, 난봉꾼인 자신의 아버지와 전 남자친구의 경험을 비추어 남자를 믿지 못한다. 그리스에서 온 사업가 줄리어스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도, 냉정하게 거부한다. 그러나 몇 가지 해프닝을 통해 줄리어스와 게일이 하룻밤을 보낸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게 되고, 두 사람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결혼한다. 이후 게일은 번민한다. 줄리어스는 자신의 몸만을 요구하

---

있을 수 없나요?], 『여학생』, 1982년 3월, 202쪽; 『알아들시다. 남자의 성충동』, 『여학생』, 1983년 7월, 255~256쪽; 『남자의 세계』, 『여학생』, 1983년 11월, 292~295쪽; 『남자의 질투』, 『여학생』, 1984년 2월, 294~297쪽.

106) 대한가족계획협회 편, 앞의 책, 106~107쪽.

107) 『사랑을 증명해주고 싶어요』, 『여학생』, 270~271쪽.

는 것 같은데, 게일은 그런 줄리어스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게일은 줄리어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도 몸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며 애써 부인한다.

“그런 말 믿지 못하겠어!”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다. “남자는 그런 이유로 결혼할 수도 있을 거야. 그것은 네가 말한 대로라고 인정하겠어. 다분히 대부분의 그리는 이스인 남성이 그럴지는 몰라. 하지만 여성은 결코 그렇지 않아!” / 게일은 비참했다. 하지만 생긱이 미소짓지 않을 수 없었다.

“너는 그다지 현실적이 아니구나, 트리셔. 여성도 그렇다구. 그렇지만 여성은 좀처럼 그렇다고 말을 안할 뿐이지.” / “너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트리셔는 게일을 무시하고 말했다. “만약 험스럽고 멋진 줄리어스가 아주 조금이라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었다면 나 역시 사랑에 빠졌으리라고 생각해. 여자애들이 모두 그에게 열중하고 있었던 것을 너도 잘 알지 않니!”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 두 사람 다 서로 육체적인 매력에 이끌려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처음부터 오래 가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게일은 줄리어스를 위해서도,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sup>108)</sup>

인용된 트리셔의 대사나, 자괴감에 빠져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는 게일의 대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은 육체만을 요구하는 남성과 다르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애정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존재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할리퀸은 위험하지만 매력적인 이방인인 남자 주인공이, 그의 사랑 방식인 육체적 욕망이 아닌 감정적 애정을 발견하거나 계발하는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에게 사랑을 느끼게 만드는 유일무이한 인물이 된다. 이것이 할리퀸 로맨스의 ‘해피엔딩’의 조건 중 하나다.

108) 엔 햄프슨, 앞의 책, 157쪽.

즉, 섹슈얼리티와 애정의 마음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사랑의 성취, 즉 ‘낭만적 사랑’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할리퀸 로맨스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앤서니 기든스는 할리퀸 로맨스가 “성적인 정복을 의미하는 남성관 정복”과 다른 정복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작품의 여자 주인공은 “자신에게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대하거나 또는 공공연히 적대시하던 남자의 닫힌 마음(heart)을 마침내 열고 들어가 그것을 누그러뜨”리는 “능동적으로 사랑을 생산”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한다.<sup>109)</sup> 이는 낭만적 사랑이 “여성화된 사랑”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sup>110)</sup> 홍신실·손윤미 역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과 맺어지는 할리퀸 로맨스의 엔딩이 남성의 ‘교화(domestication)’<sup>111)</sup>라고 언급한 바 있다.

남성성에 속하는 ‘육욕’보다 인격적 애정이 우위에 놓인다는 것, 즉 “여성화된 사랑”의 승리를 할리퀸 로맨스는 보여준다. 할리퀸 로맨스는 위험하면서도 매력적으로 미화된 남자 주인공을 통해 ‘남성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꺾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무엇도 아닌, 사랑이라는 인격적 애정이 거의 유일하다는 당대 낭만적 사랑의 역설을 담고 있다. 때문에 할리퀸의 여자 주인공이 사랑을 배워나가는 하이틴의 동반자 역할을 했으리라는 추정 역시 가능할 것이다.<sup>112)</sup>

109) 앤서니 기든스, 앞의 책, 87쪽.

110) 섹슈얼리티와 사랑의 결합, 그리고 결혼으로의 이행에서 남성과 여성의 영역 구분이 일어났다. 낭만적 사랑의 관념은 여성을 가정 내에 종속시키는 반면, 여성이 가정 내에서의 권력과 사랑을 키워가는 담당자로서의 권력을 가진다는 “박탈에 직면하여 일어난 자율성의 모순적 주장”을 가능케 했다. 앤서니 기든스, 위의 책, 83쪽.

111) 중동 로맨스에서는 “감정적, 정신적 역량”을 서양 여자 주인공에게 부여하고 동양 남성에게는 박탈했다는 점에서 제국의 남성이 식민지 여성에게 가한 “폭력적인 ‘교화’와 정복의 과정”이 할리퀸에서는 젠더가 전복되어 서구적 이분법이 오리엔탈리즘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했다. 홍신실·손윤미, 앞의 논문, 114~115쪽.

112) 이주라는 80년대 할리퀸 로맨스의 독자들이 능동적 독서를 통해 연애에 대한 나름의 간접 경험을 쌓고 있었음을 소개한다. 특히 80년대 할리퀸 텍스트가 여자 주인공이 사랑을 배우면서 느끼는 동요와 불안 심리에 주목했다면서, 여성이 남성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교화의 과정을 제시한다는 할리퀸에 대한 손진원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 글 역시 80년대 할리퀸 여자 주인공이 능동적인 교화를 했다고 말하기 보다는, 서사의 구조 내에서 수동적인 교화의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 글은 여자 주인공이 사랑을 배워나가는 텍스트라는 이주라의 주장을 참조하며 4장 1절의 마무리와 2절을 전개하였다. 손진원, 앞의 책, 168쪽; 이주라, 『삼중당의 하이틴로맨스와 1980년대 소녀들의 사랑과 섹슈얼리티』, 『대중서사연구』 제 25권 3호, 2019, 87~93쪽.

## 2) ‘정상적’ 연애 방법론과 시야 넓히기

하이틴 성교육 콘텐츠는 거의 대부분 하이틴의 첫사랑이 좌절되는 스토리텔링을 보여주었다. 앞선 장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80년대 하이틴은 낭만적 사랑의 조건 중 하나인 육체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한편, 인격적 관계를 나눌 만큼 판단이 서지 않아 첫사랑의 실패가 권장되는 아이러니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폭넓은 이성 교제는 권장되는 한편 특정 이성과의 ‘깊은’ 관계는 지양되었다.

반면에 해외의 성인 남녀가 등장하는 할리퀸 로맨스는 낭만적 사랑의 성취 과정을 매우 솔직하게 그려낸다. 비록 비현실적인 배경과 신데렐라 콤플렉스와 같은 ‘요행수’가 가능할 것 같은 세계를 표현하고, 육체관계에 대한 ‘선정적인 묘사’를 서슴지 않아 사회적으로 못매를 맞았지만, 1980년대 당시의 성교육 콘텐츠가 상정하고 있었던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부각하고, 이상적인 사랑의 성취를 이룩해나간다는 점에서 하이틴을 둘러싼 각종 성 담론과 조응하는 텍스트였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할리퀸 로맨스를 언급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작가와 작품인 샬로트 램의 『이별의 빨간 장미』를 살펴보자. 『이별의 빨간 장미』는 1980년대 할리퀸 로맨스를 읽었던 독자들이라면 대부분 기억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맨스 소설 관련 회원제 커뮤니티인 로사사<sup>113)</sup> 카페나, 신영미디어 홈페이지 ‘신영 리뷰’ 게시판에는 『이별의 빨간 장미』가 1980년대 할리퀸 로맨스의 ‘필수 입문서’였다는 독자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sup>114)</sup> 1980년대 하이틴 잡지에서 자체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에서도 할리퀸 독자 중에서 『이별의 빨간 장미』를 읽은 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소개되어 있다.<sup>115)</sup> 1986년 할리퀸 로맨스의 정식 판본을 출간하기 시작한 신영

113) 로사사(로맨스를 사랑하는 사람들) 카페(<https://cafe.naver.com/romancedate>).

114) 신영미디어(<https://www.sybook.co.kr/>).

115) 서울 S여중 3학년 4반 67명의 학생 중 로맨스를 읽어 본 42명의 학생만을 표본으로 삼고 있어 인기 척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공적인 지면에서 할리퀸의 어떤 작품이 가장 인기가 있는지 언급된 다른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80년대 할리퀸 관련 인터넷 게시물에 『이별의 빨간 장미』

미디어는, 2002년 샬로트 램의 추모 콜렉션으로 『이별의 빨간 장미』와 『사랑의 애드벌룬』과 같은 1980년대 삼중당에서 해적판으로 출간되었던 제목 그대로 소설을 출판하기도 했다.

『이별의 빨간 장미』<sup>116)</sup>의 남자 주인공 랭은 금발 여자 친구와 헤어질 때 항상 비서를 시켜 빨간 장미를 전달한다. 그는 여타 할리퀸 남자 주인공들이 그러하듯 결혼이나 사랑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여자 주인공이자 랭의 비서 니콜라는, 결혼을 했는데도 버젓이 바람을 피우는 여동생 캐롤라인과 다르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길 바라며 혼전 순결을 지킨다. 어느 날 캐롤라인과 랭이 키스하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난 니콜라는, 이성관이나 결혼관이 전혀 다른 랭과 다투면서도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애정을 드러내는 랭에게 흔들린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은 물론 그 여동생까지 관심을 보이며 키스하는 장면은 추모 콜렉션으로 발간되었을 무렵이나 요즘의 독자들에게는 호불호가 갈리는 내용이다. 흥미로운 점은 남자 주인공뿐만 아니라 여자 주인공도 비슷하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랭과 크게 싸워 갈등을 겪을 때, 니콜라는 랭의 남동생이자 회사의 부사장인 앤드루 그리고 제임스 패어팩스라는 다른 인물과도 데이트를 하거나 키스한다. 조연에 대한 질투가 장애요소로 등장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모두가 다른 조연들과 데이트를 하거나 스킨십을 나누는 소설은 할리퀸 내에서도 그리 많지 않다.

『이별의 빨간 장미』는 80년대 하이틴이 생각하던 이상적인 이성교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이 80년대 할리퀸 로맨스의 입문서라고 불릴 만한 위치에 있었다면, 당시 하이틴 독자들에게 다중 데이트(?)는 거리낄 이유가 별로 없는 요소였음이 분명하다. 사실 납득할만한 것이, 앞선 장에서 논구되었듯 80년대 하이틴의 이성교제는 지금의 이성교제와 그 성격이 달랐다. 예를 들어 지금의 연애는 ‘사귀자’라는 말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뒤에 ‘유사 결혼 관계’를 가진다. 육체적 관계와 인격적 애정을 영원에 가까운 시간동

가 거의 대부분 언급되어 있어, 80년대 가장 유명한 할리퀸 작품 중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저속한 사랑 이야기에 명드는 푸른 가슴』, 앞의 책, 174쪽.

116) 샬로트 램, 이운순 역, 『이별의 빨간 장미』, 삼중당, 1983; 이 책의 원제는 ‘Obsession’이며 1980년 작이다.



안 단 둘이서만 나눌 것처럼 행동하고, ‘사귀기로 시작한 날짜’를 기념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귀기 이전’의 상황을 ‘썸(something) 타다’라는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상대방과 자신의 마음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관계가 발전될 수 있는 어떤(something)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최근의 연애는 ‘사귀다’라는 말의 전달과 합의가 매우 절대적이고 중요한 이벤트가 되었다. 그런데 할리퀸은 물론 80년대 하이틴 잡지 어디를 보아도 ‘사귀다’라는 표현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좁은 의미의 ‘사귀다’라는 말로 사용되지 않는다.

1980년대 하이틴에게 권장되었던 이성교제는, ‘한 명의 상대와 깊이 만나지 않는 대신, 여러 명과 두루 만나보는’ 즉 요즘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귀다’라는 말로 달아버리는 형태의 교제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루 만나는 교제 상대와의 스킨십의 한계는 당연히 논란이 될 만한 논제였다. ‘깊이 만나다’의 커트라인을 어디에 둘 것인지 성교육 콘텐츠는 섹스 이외의 다른 한계선을 그어두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샬로트 램의 『이별의 빨간 장미』는 하이틴이 성 윤리를 버리지 않고(?) 상상할 수 있는 연애의 이미지를 극대화해서 보여준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자 주인공이 순결은 지키지만 당당하게 스킨십은 나눌 수 있는 세계, 여러 남자와 데이트를 나누면서 진짜 자신의 짝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세계를 구현한 것이다.

할리퀸 로맨스가 ‘저질 출판물’, ‘외설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것은 남녀의 육체적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에 있다. 이주라는 할리퀸 로맨스가 “기존 한국 사회에서 구축된 성과 사랑의 담론들을 교묘히 비껴나가는 지점에 위치”하면서, 여성의 욕망을 드러내고 “사랑의 육체성”을 긍정하는 이야기라고 소개했다.<sup>117)</sup> 오혜진 역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할리퀸 로맨스를 읽는 주인공의 반응을 예로 들며, 할리퀸 로맨스가 “10대 여성의 욕망을 실험할 수 있는 드문 장르”였다고 설명한다.<sup>118)</sup>

하이틴을 둘러싼 성 담론과 각종 텍스트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할리퀸에

117) 이주라, 앞의 논문, 84~86쪽.

118) 오혜진, 『할리퀸, 『여성동아』, 박완서』, 『원본 없는 판타지』, 후마니타스, 2020, 234쪽.

대한 분석이 명백한 것으로 드러난다. 성교육 콘텐츠는 청소년의 성 충동을 용인하면서도, 여성보다는 남성의 성욕이 강한 것으로 소개하고 상대적으로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담론이 다수였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성애를 상상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되었다 할지라도, 할리퀸만큼 노골적으로 여성의 욕망을 드러낸 작품도 드물 것이다. 물론 이 여자 주인공의 욕망은 낭만적 사랑의 바깥이 아닌 바로 그 굴레 안으로 편입되는 욕망이다. 할리퀸 로맨스의 장르적 관습, 즉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은 반드시 이어진다는 이 ‘천편일률적인 구조’가 여자 주인공의 솔직한 욕망이 독자들에게 용인될 수 있는 보루가 되어주는 것이다. 할리퀸 로맨스는 여자 주인공이 성에 대한 육체적 욕망 속에서 아주 잠깐 동안만 헤엄치기만 할 뿐, 결국 낭만적 사랑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할리퀸 로맨스가 보여주는 ‘낭만적 사랑’의 해피엔딩이 한계를 지닌 것처럼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해피엔딩으로 인해 성 담론과 관련한 넓은 시야를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순결을 잃은’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는 샬롯 램의 작품이 바로 그것이다. 1980년대에 이 작품들은 『밤의 이방인』<sup>119)</sup>과, 『사랑이 두려운 여인』<sup>120)</sup>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되었다.

하이틴 성교육 콘텐츠에서 순결은 단골 주제 중 하나였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육체적-정신적 순결이 청소년을 포함한 미혼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인 것으로 부각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순결은 여성에게 훨씬 더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졌는데, 그 근거로서는 ‘순결을 잃었을 때의 리스크’가 여성에게 과중된다는 것이었다. 특히 강제로 순결을 잃었을 때 여성은 “인격형성

119) 샬롯 램, 이길진 역, 『밤의 이방인』, 삼중당, 1983; 원작의 제목은 “Stranger in the Night”로, 1980년에 출간되었다.

120) 원작의 제목은 ‘A Violation’으로 1983년에 출간된 장편 로맨스 소설이다. 이 책은 세 가지 다른 제목, 『파문』, 『사랑이 두려운 여인』, 『그 여름의 폭풍』 등으로 제각각 출간되었다. 『파문』은 ‘하이틴 로맨스’를 출간하던 삼중당에서 ‘프레젠티 북스’라는 카테고리를 신설했을 때 출간되었다. ‘프레젠티 북스’는 1985년에 단 두 권만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한 권은 앤 마아서(Anne Mather)의 『태풍의 선물(Storm Spell)』이라는 작품이다. 『사랑이 두려운 여인』은 도서출판 다나에서 1985년에 출간되었고, 같은 출판사에서 중판을 『그 여름의 폭풍』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어 1986년에 출판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열람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 현재방에서 구매할 수 있었던 『사랑이 두려운 여인』 판본을 참조해 논문을 작성하였다.

이나 정신생활에 있어서 항상 죄악감과 후회감”에 휩싸일 정도로 크고 강렬한 것이며, “심지어 타락의 길이나 율락가에 전락”되는 결과를 낳는다.<sup>121)</sup> 순결은 행복한 결혼의 선행 요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만약에 강제적으로 순결을 잃었다라도 그 사실을 숨기며 쉬쉬해야 한다.

이주 드물게 순결을 극복한 서사<sup>122)</sup>가 소개되기도 했지만, 하이틴 성교육 콘텐츠는 자의든 타의든 순결을 잃어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마음의 병을 얻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는 ‘경고의 서사’가 즐비했다. 순결을 잃은 여성은 남성에 대한 배신과 불안함, 슬픔과 모욕으로 휩싸이고, 심지어 새로운 사랑이 죄책감을 불러일으켜 순결을 잃은 여성은 “원천적으로 죄지는 자의 괴로움”을 겪는다는 것이다.<sup>123)</sup> 비록 육체적 순결보다 정신적 순결이 우위에 있다는 담론이나, 강제적으로 빼앗긴 육체적 순결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는 담론이 존재했음에도 ‘순결을 빼앗긴 여성은 그 아픔을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거나, ‘더 이상 누구와도 사랑할 수 없는 상처를 받는다’는 인식은 여전히 팽배했다.

순결을 잃은 여자 주인공을 내세운 샬롯 램의 작품은, 이러한 인식에 반기를 든다. 『밤의 이방인』의 주인공 클레어는 어린 시절, 파티에서 만난 남자 루크와 데이트를 하다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유명한 여배우로 성공한 클레어는 루크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그로부터 위협을 받는다. 클레어는 자신의 고통을 남자 주인공인 머시에게 고백하고, 머시가 위로해주면서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게 된다. 두 사람은 육체적 쾌락에 굴복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확실해질 때까지 함께 번민한다.

순결을 잃음으로써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 주변으로부터 멀리

121) 『여고생들의 순결의 밀실』, 앞의 책, 131~133쪽; 그밖에도 비슷한 논조를 담고 있는 순결 관련 기사들은 아래와 같다. 『고교생 이성교제 찬반론』, 『여고시대』, 1977년 5월, 84~85쪽; 『신비의 인체순례-순결은 낡은 것인가』, 『여고시대』, 1979년 1월, 197쪽; 『순결, 여자의 전부』, 앞의 책, 342쪽; 『여학생 순결교실-열렬하라, 그러나 순결하라』, 앞의 책, 282~285쪽.

122) 주인공 숙희는 새엄마의 남동생, 즉 외삼촌과 ‘영검결에 실수를 저지르고’ 임신하게 된다. 비밀리에 조산한 숙희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괴로워하며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지만, 카운슬러 선생님의 도움으로 기운을 얻고 예전과 같이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다. 『카운슬링 소설-해바라기 속의 비밀』, 『여고시대』, 1976년 11월, 206~215쪽.

123) 『순결에 대하여-순결은 여성의 상징, 그리고 아름다움의 근원』, 『여고시대』, 1979년 3월, 184쪽.

가 아닌 위로를 받으며 새로운 사랑까지 찾게 된다는 스토리는 『사랑이 두려운 여인』에서도 나타난다. 주인공 클레어는 집안을 침입한 괴한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클레어는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미래의 삶에 대해 더욱 분명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여성의 수동성과 남성의 공격성이 미치도록 싫”<sup>124)</sup>다고 고백하면서, 커리어를 버리고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가리라 상상하던 미래를 다시 설계해 나간다. 특히 상사이자 소설의 남자 주인공인 래리의 도움으로, 자신의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성폭력의 상처를 서서히 치유해 결국 아픔을 극복해낸다.

샬로트 램의 할리퀸 작품은 동시대 성교육 콘텐츠가 전달하던 순결에 대한 담론과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당대의 담론이 순결을 잃는 일이 여성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고, 결국 자책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비극’ 혹은 ‘경고’를 전달했다면, 샬로트 램은 다른 메시지를 전한다. 『사랑이 두려운 여인』에서 클레어의 어머니가 “중요한 것은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네가 그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거야.”<sup>125)</sup>라고 말한 것처럼 개인의 의지로 언제나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이다. 이처럼 할리퀸 로맨스는 80년대 하이틴을 둘러싼 각종 성 담론과 조응하는 한편, 그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여성의 순결이나 욕망과 같이 당시의 보수적인 담론이 고민해보지 못한 지점을 짚어내는 역할을 했다.

## 5. 결론을 대신하며

이 글은 청소년 성교육 도입과 관련된 논란들과, 성교육이 콘텐츠화되어 하이틴을 대상으로 한 매체에서 여러 담론들을 생산했다는 점, 그리고 성교육 콘텐츠의 연장선에 할리퀸 로맨스가 위치하고 있음을 짚어냈다. 할리퀸 로맨스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문제, 이성교제와 순결의 문제, 낭만적 사랑의

124) 샬로트 램, 김정우 역, 『사랑이 두려운 여인』, 도서출판 다나, 1985, 241쪽.

125) 샬로트 램, 위의 책, 293쪽.

문제 등 하이틴을 둘러싼 당시의 다양한 성 담론을 포괄하면서도 그 시야를 넓혀주었다. 할리퀸 로맨스가 열렬한 하이틴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담론과 완전히 유리된 텍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즉, 할리퀸 로맨스의 독자가 형성되고 독서가 유지되는 것은 동시대의 문화적인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교육의 의미와 할리퀸 로맨스의 위치는 1980년대를 지나 바뀌기 시작했을 것이다. 1987년의 한 기사를 살펴보자. 『여학생』은 “이성교제의 새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80년대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달라진 이성교제 풍토를 소개한다. “떨리는 70년대, 가깝게는 80년대 초반 하더라도 중고등학교에서 이성교제는 공식적인 금기 사항 중의 하나”였으나, 83년 교복자율화와 교련 자유화, 선진화된 인식, 그리고 남녀공학인 학교가 증가하면서 이성교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는 것이다. 잡지가 인터뷰한 익명의 여학생은 이렇게 말한다. “문제는 어른들이 만드는 것 같아요. 저희는 남자 친구를 남학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저희들이 여학생 이전에 그냥 학생이듯 말이에요.”<sup>126)</sup>

위의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80년대 후반이 되기 전까지 이성교제는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는 사항이었다. 지금은 전혀 내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다소 명확하지 않은 자료이긴 하나, 기사는 80년대 초반 당시 청소년 범죄의 90%가 “이성문제로 빚어진 것”, “만나주지 않아서 사고를 저지르는 것이 대부분”<sup>127)</sup>이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만큼 과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내외하는 분위기였고, 이성교제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하이틴 잡지가 성교육 콘텐츠를 통해 전달하려고 했던 담론이 일종의 ‘판타지’를 담은 할리퀸 로맨스와 조응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소개된 배경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와 맞닿는 지점이 충분하지 않았던 하이틴에

126) 『이성교제의 새 바람-여학생들의 이성관이 바뀌고 있다!』, 『여학생』, 1987년 10월, 280~283쪽.

127) 위의 책, 281쪽.

게 성교육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논제로 남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할리퀸 로맨스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만연했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할리퀸 로맨스는 ‘급진적인’ 하이틴의 성교육 콘텐츠보다 훨씬 더 섹슈얼리티를 직접적으로 다룬 텍스트였기 때문이다.

80년대 말 이후 남녀 학생의 우정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던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각종 텍스트의 의미작용은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청소년 성교육의 방향도 달라졌을 테고, 교양·학습지와 연예·패션지가 나뉘며 점차 중수가 다양해진 하이틴 잡지는 청소년-하이틴의 성 담론과 전혀 다른 관계를 맺게 되었을 것이다. 할리퀸 로맨스의 ‘판타지’ 역시 80년대 독자들의 반응과 전혀 다르게 작용하며 그 명맥을 이어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80년대 이후 할리퀸 로맨스의 성공과 한국 로맨스 장르의 창작과 굳건한 독자층의 형성은 어떻게 의미화 할 수 있을 것인가.

덧붙여,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80년대의 하이틴 섹슈얼리티는 성교육 콘텐츠나 할리퀸 로맨스를 초과하는 것이었다. 단적인 예로, 당시의 성 담론과 성교육 콘텐츠는 사회가 인정하는 고정된 성역할과 이성애를 ‘정상’으로 간주하며, 동성애와 관련된 카운슬링 질문을 단순한 우정으로 치부했다.<sup>128)</sup> 게다가 80년대 하이틴 문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방송·연예 스타를 향한 팬덤 문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한채운은 80년대에 치마를 입지 않고 바지를 입으며 활동하며 고정된 성역할에 대한 통념을 깨는 ‘이선희’, ‘이상은’ 등 가수들의 퀴어링 즉 이분법적 성역할에 굴하지 않고 ‘자기다움’을 찾아나갔던 사실과, 이들을 쫓아다니던 ‘소녀부대’ 현상을 짚어낸 바 있다.<sup>129)</sup> 이는 정상성과 낭만적 사랑의 굴레에 귀속되지 않는, 하이틴 섹슈얼리티의 실제적 면모를 가늠해볼 수 있는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할리퀸 로맨스와 함께 주류 문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순정만화와, 90년대에 본격

128) 『카운슬링 소설-외로운 오리새끼』, 『여고시대』, 1976년 12월, 270~281쪽; 『이성교제 Q&A 대특집』, 『여고시대』, 앞의 책; 『진아암 대화 15-동성애적 경향, 자연스런 우정의 발로』, 『여학생』, 1983년 4월, 294~297쪽 등.

129) 한채운, 『‘톰보이’와 ‘언니부대’의 퀴어링-1980년대 ‘이선희 신드롬’과 ‘치마가 불편한 여자들』, 『원본 없는 판타지』, 후마니타스, 2020, 171~205쪽.

적으로 등장한 야오이(BL, Boy's Love)와 백합(GL, Girl's Love) 등은 7·80년대의 하이틴과 그 이후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독자의 섹슈얼리티를 다루는 중요한 텍스트라 볼 수 있겠다. 할리퀸 로맨스가 이러한 텍스트들과 어떤 관련을 맺으며 의미화 될 수 있는지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구혜영, 『진아의 편지』, 창원사, 1974.  
 \_\_\_\_\_, 『진아 엄마에게』, 창원사, 1975.  
 바이올렛 원스피어, 진웅기 역, 『가짜 신부』, 삼중당, 1983.  
 \_\_\_\_\_, 『사랑과 미움』, 삼중당, 1983.  
 살로트 램, 이응순 역, 『이별의 빨간 정미』, 삼중당, 1983.  
 \_\_\_\_\_, 이길진 역, 『밤의 이방인』, 삼중당, 1983.  
 \_\_\_\_\_, 김정우 역, 『사랑이 두려운 여인』, 도서출판 다나, 1985.  
 앤 햄프스, 민재상 역, 『악마의 키스』, 삼중당, 1983.  
 『여고시대』, 『여학생』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 대한가족계획협회 편, 『사랑의 성교육』, 대한가족계획협회, 1971.  
 손진원, 『로맨스, 전복의 가능성을 묻다』, 『글 쓰는 여자는 위험하다』, 들녘, 2019.  
 앤서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2003.  
 오혜진, 『할리퀸』, 『여성동아』, 박완서, 『원본 없는 판타지』, 후미타스, 2020.  
 이주라·진산, 『웹소설 작가를 위한 장르 가이드』 1. 로맨스, 북비이북, 2015.  
 이화연,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 어떻게 할까』, 들베개, 1991.  
 인간발달연구소, 『중·고교생을 위한 성교육-계획과 실제』, 교육출판사, 197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국 편저, 『성교육 교과서』, 동지, 1990.  
 조은주, 『가족과 통치』, 창비, 2018.  
 중앙교육연구소 편, 『중앙교육연구소 이십년지: 1953~1973』, 중앙교육연구소, 1973.  
 한채윤, 『툼보이』와 『언니부대』의 퀴어링 - 1980년대 『이선희 신드롬』과 『치마가 불편한 여자들』, 『원본 없는 판타지』, 후미타스, 2020.  
 Clint E. Bruess · Jerrold S. Greenberg, 조아미 외 옮김, 『성교육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11.
- 권인숙, 『1950~70년대 청소년의 남성성 형성과 국민 만들기의 성별화 과정 - 청소년 잡지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6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281~321쪽.  
 김정옥,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의식 실태에 대한 문헌연구』, 『가정생활연구』 제3집, 대구대학교 가정생활 연구소, 1988, 79~88쪽.  
 \_\_\_\_\_, 『성교육 관련문헌 분석·비교연구: 1986년부터 1994년까지의 문헌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4권 2호,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7, 347~364쪽.  
 나윤경, 『60~70년대 개발국가 시대의 학생잡지를 통해서 본 10대 여학생 주체형성과 관련한 담론분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6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323~374쪽.  
 생활지도연구실, 『순결교육 지침서 작성 연구』, 『소보』 제9권 1호, 중앙교육연구소, 1968년 3월, 40~59쪽.  
 손진원, 『1980년대 문고본 로맨스의 독자 상징과 출판 전략 연구 - 『하이틴』 기호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 25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9, 41~66쪽.



- 엄준석, 『1970년대 한국 하이틴 영화 연구: '진짜 진짜' 시리즈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 유인호, 『1970년대 하이틴 영화에서의 청소년 주체구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이주라, 『한국 근대의 순결 이데올로기와 처녀라는 주체』, 『어문논집』 79호, 민족어문학회, 2017, 61~88쪽.
- \_\_\_\_\_, 『삼중당의 하이틴로맨스와 1980년대 소녀들의 사랑과 섹슈얼리티』, 『대중서사연구』 제 25권 3호, 2019, 67~99쪽.
- 이진분·김동위, 『한국 성교육의 실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제9집, 상명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88, 7~88쪽.
- 정미량, 『1960년대 한국 중등학교 여학생의 여성성 구성과 그 함의-잡지 여학생 분석을 중심으로』, 『한민족 문화연구』 제66권, 한민족문화학회, 2019, 139~178쪽.
- 홍신실·손윤미, 『할리퀸 소설의 만화화와 오리엔탈리즘 젠더 담론의 재구성』, 『영어영문학』 제 17권 3호, 미래영어영문학회, 2012, 103~129쪽.

로맨시안 (<https://www.romancian.com/>로맨스 - 소설의 - 역사 - 할리퀸 - 장르 - 총정리/)

로사사(로맨스를 사랑하는 사람들) 카페 (<https://cafe.naver.com/romancedate>)

신영미디어 (<https://www.sybook.co.kr/>)

## A Study on Highteen Sex Education Contents and Harlequin Romance in the 1980s

Son, Jin-Won\*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cultural background and content of the production of sex education contents for Highteen in the 1980s, and to try to reevaluate Harlequin romance in comparison with the discourses on sexuality in the time. To this end, this article looked at related discourses in the late 1960s, when the need for sex education for teenagers began to emerge in earnest, and checked various sex education contents published in Highteen magazines such as “Yeohaksaeng” and “Yeogosidae” which used to refer female students(Highteen) as readers. Then, this paper analyzed the Harequin romance, which was published in 1979 and consistently read by Highteen readers in the 1980s, and examined how it had to do with the sexuality discourse of sex education contents.

Sexuality discourse, which was regarded as a “sensitive” issue for teenagers in the 1960s, began to use the story-telling for the goal goal of “education” in the 70s and gradually became a public debate and in the 80s, it was delivered as content with the character of “entertainment” or “commerciality.” The sexuality discourse in sex education content was closely related to Harlequin romance, which was then published with highteen as a reader. Sex education contents served as an entertainment for highteen readers to imagine and secretly enjoy sexual love, as well as for educational purposes. On the other hand,

---

\* Korea University

Harlequin romance, which was considered a “low – quality publication, ” was rather largely in fit with the sexuality discourse surrounding highteen. Harlequin romance also played a role in broadening the horizons of the conservative discourse in the time.

**Key words** : Highteen, 1980s, sex education, Harlequine romance, romantic love, high school girls, discourses on sexuality

